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다중 출처 기반의 공연예술자료 기술에
관한 연구

2015년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이창민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이호신

다중 출처 기반의 공연예술자료 기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scription for performing Arts Resources
based on Multiple Provenance

2015년 06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이 창 민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이호신

다중 출처 기반의 공연예술자료 기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scription for performing Arts Resources
based on Multiple Provenance

위 논문을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06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이창민

이창민의 기록관리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0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국 문 초 록

다중 출처 기반의 공연예술자료 기술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이 창 민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다. 인간의 창의적이고 지적 활동의 결과물인 문화와 예술이 새로운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미디어 기술의 발달과 콘텐츠 산업의 눈부신 성장으로 말미암아 이제 문화와 예술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자원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자원의 체계적인 수집과 관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여된 당면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이 새로운 자원으로 인식 받고 있는 공연예술은 하나의 작품이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공연이 이루어지고, 하나의 공연에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종류와 매체의 파생적인 기록이 생산되고, 아울러 공연 생산 과정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활동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고유한 특징을 지닌다. 즉 공연예술자료는 일반적인 공공기록과는 달리 수많은 출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 연유로 자료를 단일 출처, 예컨대 어느 특정 단체나 개인의 관점에서만 기술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인식하고 공연예술자료를 정리, 기술할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공연예술과 그 파생자료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탐구하여 공연예술자료의 행위과정을 구별하는 한편, 자료의 유

형을 정리하고 각각의 행위과정에서 발생 될 수 있는 자료들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기록관리의 전통적인 원칙인 출처, 원질서 원칙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ISAD(G)를 공연의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이 결과 물리적인 출처를 기준으로 하는 전통적인 관점의 출처주의는 생산에 수많은 개인과 단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공연의 생산맥락을 완전히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기능적 출처, 다중 출처, 동시적 다중 출처를 살펴보아 생산자와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표현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였다.

그 후, 목록의 본질적 기능인 집서기능에 충실하다고 평가받는 FRBR을 살펴보고 다중 출처를 지니는 공연예술자료에 적용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 결과 FRBR은 자료를 계층적, 집합적으로 조직할 수 있으며, 공연예술의 시간 변화를 민감한 계층 표현으로 표현해 줄 수 있음이 나타났다. 하지만 표현형 계층에서 각각의 개별적인 공연들을 설명해 줄 수 없는 한계 또한 지녀 좀 더 새로운 메타데이터 모델을 제안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3장에서는 국내 대표적 공연예술관리 기관인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국립국악원 국악아카이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의 전체 메타데이터 사례를 살펴보고, 이 요소들을 바탕으로 향후 제안할 모델에 사용될 메타데이터 요소를 선별하였다.

4장에서는 공연예술자료의 수많은 이해당사자와 단체들을 기술하기 위한 모델과 요소를 제안하였다. 먼저 모델은 출처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자료가 자유롭게 이합 집산될 수 있는 메타데이터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에 사용되는 개체들은 작품, 공연, 개별 공연, 매체, 개별 자료로 이루어진다. 한편 모델에 사용되는 메타데이터 요소들은 다음의 방법을 통해 도출되었다. 첫째, 3장에서 파악한 기관들의 전체 요소들을 제안한 모델의 개체인 작품, 공연기획, 공연, 매체, 개별 자료에 각각 매핑하였다. 둘째, 매핑 결과물은 해당 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전문가 3명의 자문을 받아 현실 적용 가능성과 타당성 점검을 시행하였다. 이에 용어 교정 등 관련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다. 셋째,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총 89개의 전체 메타데이터가 도출되었다.

이 요소들은 각 개체에서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첫째, 작품은 하나의 추상적인 작품에 관한 배경정보 기술을 위한 메타데이터인 식별 코드, 제목, 부제, 이형제목, 창작연도, 창작일 등 18개 요소가 도출되었다.

둘째, 공연에는 공연일정, 장소, 참여자, 공연단체, 관련 행사 등을 17개 메타데이터 요소가 도출되었다. 이들은 작품의 추상적 내용이 공연이라는 구체적 과정으로 기획되는 프로세스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셋째, 개별 공연은 특정한 실제 개별 공연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기 위한 관련 공연정보와 공연일시, 특이사항 등 11개 메타데이터 요소가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FRBR의 표현형 계층이 전체 일정으로 진행된 공연과 하나하나의 개별 공연을 구분하여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매체는 각각의 개별 공연에서 파생된 매체의 사항을 기술하기 위한 수량, 크기, 매체 종별, 제작자, 제작 장소 등 24개 메타데이터 요소가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개별 자료는 자료를 기록으로 관리하기 위한 식별 코드, 입수일, 관리 이력, 자료 위치, 이용조건 등 19개 요소가 도출되었다.

【주요어】 공연예술자료, 기록, 메타데이터, 아카이브, ISAD(G), FRBR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의 목적	1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1.3 선행 연구	5
II. 이론적 배경	9
2.1 공연예술과 공연예술자료의 이해	9
2.1.1 공연예술의 생산과정과 특성	9
2.1.2 공연예술자료와 그 특성	12
2.2 공연예술자료의 정리 및 기술	17
2.2.1 출처의 원칙	17
2.2.2 ISAD(G)	21
2.3 FRBR	26
2.3.1 FRBR 구성과 개체 특성	26
2.3.2 FRBR 개체 관계	29
III. 공연예술자료 관리기관 메타데이터	35
3.1 공연예술자료 관리기관 메타데이터 사례	35
3.1.1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35
3.1.2 국립국악원	38
3.1.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	41
3.2 공연예술자료 관리기관 메타데이터 요소 선별	45

IV. 공연예술자료 메타데이터 제안	47
4.1 공연예술자료 메타데이터 모델 제안	47
4.1.1 제안 모델 개체 정의와 그 관계	48
4.1.1 제안 모델 개체 사례	53
4.2 공연예술자료 메타데이터 요소	59
4.2.1 작품 메타데이터 요소	66
4.2.2 공연 메타데이터 요소	72
4.2.3 개별 공연 메타데이터 요소	76
4.2.4 매체 메타데이터 요소	79
4.2.5 개별 자료 메타데이터 요소	85
V. 결론	90
참고문헌	92
<부 록> 메타데이터 요소 적용 사례	99
ABSTRACT	106

표 목 차

<표 1> 공연예술의 행위과정	11
<표 2> 공연예술자료의 유형	13
<표 3> 공연예술 행위과정에 따른 발생자료	15
<표 4> ISAD(G)영역과 기술요소	22
<표 5>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메타데이터 요소	36
<표 6> 국립국악원 메타데이터 요소	39
<표 7>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예술자료원 메타데이터 (저작)	42
<표 8>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예술자료원 메타데이터(표현형)	43
<표 9>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예술자료원 메타데이터(구현형)	44
<표 10> 기관 개별 메타데이터	46
<표 11> 공연예술자료 관리기관 메타데이터 매핑	59
<표 12> ISAD(G)요소 매핑	60
<표 13> 개체 별 메타데이터	61
<표 14> 공연예술자료 정리와 기술을 위한 메타데이터 최종 제안 ...	65
<표 15> 작품 메타데이터 요소	65
<표 16> 공연 메타데이터 요소	72
<표 17> 개별 공연 메타데이터 요소	76
<표 18> 매체 메타데이터 요소	79
<표 19> 개별 자료 메타데이터	85

그림 목 차

<그림 1> 극단연극기록의 정리 사례	23
<그림 2> ISAD(G) 생산자 항목	24
<그림 3> FRBR 모형 개요.	26
<그림 4> FRSAD 개체 모형	28
<그림 5> FRBR 제1집단 개체와 주요 관계	29
<그림 6> FRBR 제2집단 개체와 책임 관계	30
<그림 7> FRBR 제3집단의 개체와 주제 관계 사례	32
<그림 8> FRBR 개체 전체 부분 관계	33
<그림 9> 제안 개체와 그 관계	49
<그림 10> 메타데이터 모델	52
<그림 11> 작품에서 나타나는 관점	54
<그림 12> 공연에서 나타나는 관점	55
<그림 13> 개별 공연에서 나타나는 관점	56
<그림 14> 매체에서 나타나는 관점	57
<그림 15> 개별 자료에서 나타나는 관점	58

I. 서론

1.1 연구의 목적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다. 인간의 창의적이고 지적 활동의 결과물인 문화와 예술이 새로운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미디어 기술의 발달과 콘텐츠 산업의 눈부신 성장으로 말미암아 이제 문화와 예술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자원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자원의 체계적인 수집과 관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여된 당면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공연예술은 아주 오랜 연원을 지닌 예술 장르의 하나로, 인류의 역사와 함께 지속해 왔다. 때로는 고단한 노동의 현장에서 힘을 북돋우기 위한 수단으로, 때로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결속을 다지는 수단으로, 때로는 고독한 인간의 자기표현 수단으로, 다양한 쓰임새로 공연예술은 인류의 삶 속에서 함께 자리를 지켜 왔다.

그렇지만 그 오랜 역사적인 연원과는 달리 공연예술은 보존에는 매우 취약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공연예술 그 자체는 공연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과 장소에서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문학이나 미술의 표현 행위가 작품이라는 고유한 기록을 만들어내는 작업인 것과는 달리 공연예술의 표현 행위는 작품 그 자체를 뒤에 남겨 놓지 않는다. 공연은 현재를 기반으로 하는 순간의 예술로, 결코 공연 이후의 어떤 것도 염두에 두지 않는다. 이런 까닭에 이 창조의 순수한 결정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보존할 것인가는 쉽사리 해결할 수 없는 숙제 가운데 하나였다. 그렇지만 미디어와 정보기술의 발달은 이제 여기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다. 공연 현장을 사진으로 찍고, 영상으로 제작하는 일은 이제 아주 익숙한 풍경이 되었고, 이렇게 생산된 자료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관리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하나의 담론의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하여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한국문화예

술위원회와 같은 공공기관들도 공연예술자료의 수집과 보존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관련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집된 공연예술자료를 디지털아카이브로 구축하여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흐름은 기록관리학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동안 공연예술자료와 관련된 적지 않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렇지만 그 대부분은 공연예술자료의 현황과 보존 실태를 조사한 것들이었고, 그 수집과 보존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의 마련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들어 서야 비로소 실무적인 측면에서 공연예술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정리할 것인가에 관한 사항으로 논의가 퍼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논의는 아직은 초보적인 논의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기록관리의 표준체계를 공연예술자료의 특수성에 대한 심층적인 고려 없이 그대로 차용하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어 현장의 요구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기록의 대상이자 주제를 형성하는 공연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 해당 기록이 생산·유통·활용되는 맥락을 온전하게 기술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런 방식으로 기록 관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할 것이다.

공연예술은 하나의 작품이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공연이 이루어지고, 하나의 공연에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종류와 매체의 파생적인 기록이 생산되고, 또한 공연의 과정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활동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고유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하나의 작품에서 비롯된 다양한 공연들을 어떻게 유연하게 조직하고, 하나의 공연에 비롯된 다양한 매체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조직하고, 하나의 공연에 참여한 서로 다른 역할의 사람들과 관련된 맥락을 어떻게 소상하게 기술할 것인가는 공연예술기록의 기술에 있어서 무엇보다 우선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는 이러한 부분에까지 미세하게 시선이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실정들을 참작하여, 이 연구는 공연예술자료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바탕으로 공연예술자료를 집합적이며 여러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작품과 공연과의 관계, 공연을 기록한 다양한 매체들 사이의 관계, 공연에 참여한 다양한 사람들과 공연과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표현하는데 가장 적절한 기술요소를 제안하여 공연예술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려고 한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연구는 공연예술자료가 지니는 고유한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연예술자료가 가지는 맥락을 가장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요소를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연예술과 공연예술자료에 대한 풍성한 이해와 함께 기록물 기술을 위한 표준 메타데이터 체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현장에서의 다양한 사례에 대한 이해도 함께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연구는 몇 가지 절차와 방법을 활용해서 진행되었다.

첫째, 공연예술과 공연예술자료가 지니는 고유한 특징을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이 가운데에서도 공연예술의 기획과 생산의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각각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기록물과 그것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특이사항을 세밀하게 살펴보았다.

둘째, 공연에 관계되는 수많은 사람들과 기록물과의 관계를 출처, 원질서와 이를 근간으로 한 다계층기술을 지니고 있는 ISAD(G)(General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Description)의 관점에서 점검하여, 공연예술자료에 적용할 수 있는 출처, 원질서와 ISAD(G)의 특수성을 고찰하였다.

셋째, 공연예술자료 정리와 기술을 위해 개체와 개체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서지정보를 표현하는 FRBR(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의 구조가 공연예술자료를 입체적으로 기술하기에 적합한 것인지를 점검하였다.

넷째,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국립국악원 국악아카이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의 공연예술자료 기술과 정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를 각각 분석하였다. 이로, 향후 제안할 모델에 사용할 요소들을 선별하였다.

다섯 째, 공연예술자료가 지닌 다양한 맥락을 충실히 표현하는데 적합한 메타데이터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은 작품, 공연, 개별 공연, 매체, 개별 자료의 5개 개체를 지니는 모델로 예술가, 공연 기획사, 극장 등 다양한 관점에 따라 재구성되며 이를 입체적으로 표현하도록 설계되었다. 한편 모델에 사용되는 요소는 앞서 기관별 분석을 통해 선별된 메타데이터 요소를 각 개체에 매핑하는 방식으로 취하였다. 매핑 후에는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전문가 3명의 자문을 받아서, 관련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그 최종적인 의견으로 완성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각기 특성을 지닌 무용, 음악극, 뮤지컬, 마임 등 공연예술의 장르마다 메타데이터를 다르게 하여 도출하는 세밀한 과정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도출한 개체 중 개인과 단체를 설명하는 메타데이터는 이 연구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하였다.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하여 더욱 확장되고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1.3 선행연구

국내의 공연예술자료 관련 선행연구는 공연예술자료의 현황과 보존실태를 조사하여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 수집 이후 자료 정리와 기술을 통한 보존에 관한 연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첫째, 공연예술자료의 현황과 보존실태에 관한 연구들로, 서영순, 설문원, 이범환, 정혜원, 정희숙, 류민주의 연구가 있다.

서영순(1989)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서영순은 연극연구 및 작품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연극도서관 설립과 운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연극인들의 정보요구를 조사하여 연극도서관의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설문원(2011)은 국내외 예술기록 정리와 분류 현황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에서 기록 생산 과정에서의 맥락을 보존할 수 있도록 출처 및 원질서 유지의 원칙에 기반 하여 예술기록의 조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국내 공연예술자료 관리 기관들의 경우에는 자료의 계층적, 집합적 정리를 고려하지 않고 개별 정보 단위를 중심으로 정리가 이루어져 공연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유한 특성과 맥락이 자료 정리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범환(2009)은 공연예술기록의 중요성과 공연예술 아카이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공연예술 아카이브의 운영현황을 분석한 후 공연예술기록 관리의 제도적,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정혜원(2007)은 연극 아카이브 특성 및 현황 연구에서 순간성을 지닌 공연예술자료의 관리 어려움을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의 연극 아카이브 현황을 민간과 공공 두 개 영역으로 나누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조사하여, 연극 아카이브 운영의 문제점을 살펴 연극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현실적으로 연극아카이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체계적 수집과 보존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정희숙(2008)은 해외 운영 사례를 우리나라의 공공 및 민간 기관과 비교, 평가하여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공연예술자료

보존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정은진(2009)은 작품을 공연하고 나면 재현할 수 없는 연극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극을 기록화하여 유형을 도출하였다. 한편 기록화 작업 시 연극 창작 과정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기록이 생산되는 지점을 확인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의도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기록이 무엇인지 그 대상을 확정하고 기록화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지는 후속연구(정은진, 2011)는 연극 분야 기록물을 수집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현재 분산된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환경마련을 강조하였다.

류민주(2011)는 지역 연극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기록화 전략 설계 후 부산을 대상으로 적용시켰다. 이 전략을 통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부산 연극 아카이브에 대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진 의의가 있다, 실태파악 결과로 연극 아카이브가 부재 상태이며 이로 연극 활동의 결과만 파악할 수 있는 최종 산출물만 존재하는 것을 밝혔다. 특히 공연예술의 특성상 기록이 생산되기가 어렵고 유실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공연 현장과의 연계를 통한 수집협력체계 구축의 당위성을 설명하였다.

둘째, 공연예술자료 수집 이후 정리와 기술에 관한 연구들로는 김태은, 김해미, 박민구, 박성욱의 연구가 있다.

김태은(2011)은 국내 공연예술 기록물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에 관한 연구에서 국내외 공연예술 기록물의 메타데이터 적용 사례와 국내 공연예술 기록물 담당자들의 실무적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반영한 메타데이터 요소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메타데이터요소는 총 116개이며 이를 나누어 1수준 61개, 2수준 55개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1수준에서는 하나의 공연에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의 역할을 단순히 Creator(생산자)와 Contributor(기여자)로 나누어 이와 관련된 맥락을 충분히 표현해주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1, 2수준 모두 기록을 누가 작성했는지,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접근했는지, 수정했는지 등과 같은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필수 사항이 실무 반영이라는 이유로 모두 제외된 것이 아쉽다.

김해미(2010)는 공연예술박물의 관리를 위한 기술요소를 제안하고 적용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CDWA(Categories for the Description Works of Art)를 기준으로 공연예술 및 박물관 관련 기술규칙인 VRA(Visual Resources Association) Core와 RDA(Rules for Archival Description) Objects를 비교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7개 영역과 34개 기술요소 및 34개 하위요소와 10개 필수요소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미술작품을 기술하기 위해 특화된 기술규칙인 CDWA로 공연예술박물관을 정리한 한계가 있다.

박민구(2008)는 민간 극단 기록물을 정리하기 위하여 'record group'(극단명) - 'sub record group'(공연작품) - 'series'(기능) - 'file'(주요단체) - 'item'(주요기록물)의 5계층으로 구분하고, 'series'에 해당하는 기능을 기획·홍보, 연출, 무대예술·무대기술, 관객과의 만남으로 제안하였다.

한편 기술은 ISAD(G)의 7개 영역과 26개의 모든 기술요소에 따라 연극 기록을 기술하되 공연작품계층과 공연작품의 생산주체인 기획·홍보, 연출·무대 예술·기술, 관객과의 만남 계층에 대한 기술을 필수적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기록 생산에 참여한 인물이나 단체를 기술할 수 있는 요소가 '생산자' 단 하나로 수많은 사람이 관여하여 생산되는 공연을 설명하기 어려운 ISAD(G)를 요소의 추가나 변경 등을 제시하지 않고 그대로 차용하여 공연예술자료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박성욱(2009)는 공연예술 자료 메타데이터 구조 설계를 위한 연구에서 공연예술 관리 기관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와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을 바탕으로 내용, 구조, 맥락, 기록관리의 네 영역을 가지는 메타데이터 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메타데이터 안은 생산자를 기술하는 요소가 생산자정보 단 하나로 공연예술의 수많은 생산자와 이해당사자들을 모두 기술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공연예술자료의 현황과 보존실태 조사를 통해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수집과 보존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공연예술 분야를 기록학 분야의 범주에 포함하기 위한 이론적 밑바탕을 다지는 데 주력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들어서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공연예술자료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

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ISAD(G)와 같은 공통 표준을 특수성을 지닌 공연예술과 그 파생자료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문제, 공연의 생산 과정에 수많은 이해당사자와 단체가 관련된 맥락을 어떻게 구성하고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한계가 파악되었다. 이 연구는 이를 인식하고 공연예술 정리와 기술을 위한 메타데이터 모델과 요소를 제안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공연예술과 공연예술자료¹⁾의 이해

2.1.1 공연예술의 생산과정과 특성

공연예술은 일정한 의도를 가진 작품이 특정한 공간을 통해 재해석 되어 공중에게 향유되는 행위예술이다. 아울러 공연자, 공연작품, 관객의 세 요소를 기본으로 무대장치(미술)·조명·음향효과·안무·음악 등 인접하는 여러 예술이 함께 어울려 완성되는 종합예술이다(드라마사전, 2011). 이러한 공연예술의 생산 행위과정은 장르나 제작 규모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전체 행위과정이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김중효 외 2009).

공통으로 도출되는 공연예술 행위과정은 크게 공연 전(기획단계) - 공연 전(공연 실연 준비단계) - 실제 공연 실연 - 공연 후로 나뉜다.

공연 전의 기획 과정에서는 공연계획 - 작품 선정 - 작품분석 - 배우 캐스팅 및 스태프진 결정이 이루어진다. 공연계획단계는 해당 계획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이 주체가 되어 공연의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작품 선정단계는 작품을 선택하는 단계로 작품의 판권을 취하거나, 공연장소 마련 등의 재정적 상황이나 인적 상황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작품을 선택하게 된다. 이때 기획자나 감독, 연출가 등이 기본적인 주체이거나 공연을 실연하기 위한 재정을 지원하는 후원자들의 알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작품 분석단계는 기획자나 연출가 등이 주체가 되

1) 공연예술에서 파생된 것들은 자료, 기록 등 다양한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자료'는 연구, 조사의 바탕이 되는 재료이며, 기록은 4대속성(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이용가능성)을 충족시켜야 온전히 그 가치를 인정받기에 증거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용어이다. 이들을 어떠한 용어로 지칭할 것인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모두가 공연을 보존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라는 점에 이견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공연에서 나온 파생물들을 특정한 측면의 용어인 공연예술기록으로 제한하여 기록의 성격을 지닌 것들만 정리와 기술의 대상으로 삼아 보존하는 것 보다는, 공연예술자료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사용해서 이들 모두를 정리와 기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보편타당할 것이다.

어 선정한 작품을 대상으로 연출할 스타일을 도출하고 극의 캐릭터 성격을 파악하여 필요한 배역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배우 캐스팅 및 스태프진 결정 단계는 연출가 등이 앞서 결정한 연출 스타일이나 작품의 캐릭터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배역과 스태프진을 선별하는 과정이다.

기획 단계가 완료되면 공연을 실연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디자인 조합 - 연습 - 총연습(프리뷰)가 이루어진다. 디자인 조합은 연출자와 스태프진진이 주체가 되어 작품이 요구하는 무대와 그 조명, 의상, 분장, 음향을 계획하고 디자인하는 과정이다. 연습은 연극자가 맡은 배역을 연습하여 극 안의 캐릭터를 실연 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다. 총연습은 최종 연습으로, 실제와 같이 관객을 입장시켜 공연 하는 과정이다. 이 모든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 <표1>과 같다. 아울러 이렇게 실연된 공연은 재해석 과정을 통해 공연이나 영화, 문학 등 다시금 문화예술로 탄생하기도 한다.

지금껏 살펴본 것처럼 공연예술은 공연자와 관객 외에도 무대감독이나 조명, 음향, 의상, 분장, 세트 등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 모든 것을 총괄하는 연출가, 공연의 생산과 소비과정에서의 이해 당사자 등 공연예술은 수많은 사람의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실연될 수 있다. 더불어 각 행위과정에서도 주체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행위를 완성하고 있다. 즉 공연예술은 집단적인 생산물이란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표1> 공연예술의 행위과정

행위 단계	행위과정	행위 내용	행위주체
공연 전 (기획)	공연계획	공연 제작에 관련된 모든 참여자가 협동을 통해 동의를 끌어내는 과정	공연 총괄자(기획자 등)
	작품선정	재정, 인적 극장상황, 등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작품을 선택하는 과정	기획자, 연출가, 작가, 후원사
	작품 분석	선택한 작품을 분석하여 연출 스타일 도출. 이를 통해 배우는 누구를 섭외할 것인지, 무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정함.	연출가, 무대감독
	배우 캐스팅 및 스태프진 결정	오디션이나 감독 임의에 의한 선택으로 연출가, 배우, 스태프진의 역할 세분화	기획자, 연출가, 감독
공연 전 (준비)	디자인 조합 (무대장치, 조명, 의상, 분장, 음향, 소품)	작품이 요구하는 무대, 조명, 의상, 분장, 음향을 연출자와 스태프진이 계획하고 디자인하는 과정	연출자, 무대감독, 스태프진
	연습	연기자의 극 중 인물분석을 통한 형상화 과정	연출가, 무대감독, 배우
	총연습(프리뷰)	관객을 입장시켜 실제 공연과 같이 진행하는 과정. 이를 통해 공연의 완성도를 높인다. (소품 리허설 및 드레스 리허설 포함)	연출가, 무대감독, 배우, 스태프진
공연	공연	실제 공연. 공연 참여자와 관객과의 의사소통 과정.	연출가, 무대감독, 배우, 스태프진, 관객
공연 후	무대 인사	커튼 콜 및 관객 참여	배우, 관객
	검토와 수정	공연의 문제점 검토과정. 이를 통해 다음 회차 공연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	전체 참여자
	재해석 ²⁾	예정된 일정을 마친 공연을 재해석하여 새로운 공연을 탄생시키는 과정 (예: 번역 등)	

2) 이는 해당 공연의 행위과정은 아니며 항상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2.1.2 공연예술자료와 그 특성

‘공연예술자료’의 정의 및 범위는 논자에 따라서 실로 다양하다. 이호신(2007).은 공연예술작품 창작에서 생산된 기록 일체와 공연예술 활동을 보조하고 체계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든 자료로 그 범위와 정의를 말하고 있다. 더불어 디지털화된 자료 원본과 디지털 형태로 생산되는 이미지, 동영상, 메타데이터도 공연예술자료에 해당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정희숙, 2008). 또한 공연예술 장르의 하나인 연극을 기록학 관점에서 규명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자료의 정의와 범주를 살펴볼 수 있다. “연극기록은 연극 행위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으로 이는 연극 현장 기록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행정자료, 개인과 조직의 존재와 관련된 자료, 연극의 기억을 확장하고 집합적 행위 맥락을 보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한 자료를 모두 포함”(정은진, 2009).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연예술자료란 공연의 행위과정에서 생산된 자료와 이들을 보조하는 성격의 모든 자료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하지만 이러한 추상적인 정의만 가지고는 발생하는 기록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공연 행위과정에서 도출되는 자료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앞서 정리한 <표1>의 공연생산 행위과정을 기준으로 도출되는 자료를 파악하고 유형을 구분하였다. 유형 기준은 공연예술자료관 건립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유형을 바탕으로 서지자료, 전자 자료, 시청각 자료, 박물관 자료로 구분하였다. 서지 자료는 인쇄된 자료로 해당 공연예술과 관련되어 이를 설명하거나 입증한다. 시청각 자료는 비디오, CD 등 공연과 관련된 시청각 자료 중 재생기기를 반드시 수반해야 하는 시청각 자료를 뜻한다. 즉 사진이나 그림 등은 본디 시청각 자료에 속 하지만 별도의 기기를 수반하지는 않음으로, 인쇄자료에 포함된다. 전자 자료는 공연을 설명하거나 공연 그 자체를 담고 있는 모든 전자적 형태의 자료를 포함한다. 박물관 자료는 공연 전 프로세스에서 생산되어 공연예술 활동을 반영하는 유형적 증거물이다(김해미, 2010).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공연예술자료의 유형

구분	내용
인쇄자료	해당 공연예술과 관련되어 이를 설명하거나 입증하는 성격의 인쇄 자료(그림, 사진 포함)
전자자료	공연을 설명하거나 공연 그 자체를 담고 있는 모든 전자적 형태의 전자 자료
박물 자료	박물 자료는 공연 전 프로세스에서 생산되어 공연예술 활동을 반영하는 유형적 증거물로 모형, 의상, 소품, 소도구, 도면 등

공연예술자료들은 공연예술 행위과정에 따라 여러 유형의 자료가 도출되고 있다. 먼저 공연계획 과정에서는 기획자가 제안하는 공연 제안서, 기획서나 이 계획을 파악하고 선택하기 위한 회의에서 나오는 회의자료, 서신 및 서한, 계획을 보완하는 성격의 컨설팅 자료 등이 나올 수 있다.

작품선정 과정에서는 기획자가 작품을 택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서한이나 서신 등 의사소통 자료, 작가가 단체 등에 처음 제출한 공연 공연 대본집 초안 작가 노트, 기획자나 연출가가 공연장소 등을 고려하여 작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의 선정 사유서, 원작을 공연예술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발생하는 새로운 공연 대본집 자료, 이를 출판한 도서자료 등이 도출될 수 있다.

작품분석 과정에서는 연출가가 작품을 연출하기 위하여 아이디어 등을 정리한 연출가 노트, 이를 시간 순대로 실행하기 위한 연출 대본, 극 중 캐릭터를 분석하여 연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을 정리한 분석집 등이 도출될 수 있다.

배우 캐스팅 및 스태프진 결정에서는 배우 및 스태프진들을 채용하기 위해 받은 이력서 자료, 이들을 채용하기 위한 기획서, 계약서 고용자들 신상 등이 기록된 인력풀자료 등이 도출될 수 있다.

디자인조합 과정은 다른 과정과 비교하여 박물 성격을 가진 자료들이 많이 도출된다. 무대 디자이너의 무대박물 자료, 의상디자이너의 의상 등이 도출된다. 이 외 무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서, 설계도

등이 있을 수 있다.

총연습 과정에서는 실제 관객을 초청하기 위한 팸플릿 등의 공연 홍보물, 티켓, 초대장이나 총연습과정을 촬영한 시청각자료, 사진, 이를 보도한 보도자료, 평가자료 등이 도출될 수 있다.

공연 과정은 실제 공연의 입장권, 공연을 촬영한 시청각 자료, 사진, 이를 보도한 보도자료 등이 도출될 수 있다.

무대 인사 과정은 공연이 끝난 직후 배우들과 관객들과의 만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청각자료, 이벤트 자료 등이 도출될 수 있다.

검토와 수정 과정에서는 다음 공연을 더 잘하기 위한 수정 제안서나 계획서, 이를 위한 회의자료, 해당 공연 최종평가서 등이 도출될 수 있다.

관객관리 과정은 공연을 본 관객들을 사후 관리하는 것으로 관객 통계자료, 이벤트 당첨 관객 관리 등의 자료가 도출될 수 있다.

공연비평 과정에서는 관객이나 비평가가 공연을 보고 난 후의 비평 자료 등이 도출된다.

공연 녹화 매체 제작과 판매 과정은 실제 공연을 녹화한 시청각 자료를 매체 제작 전문 업체에 맡겨 제작한 후 이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이다. 이때 업체 간의 계약서, 판매계획서, 공연 녹화본 홍보자료 등의 자료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모든 프로세스를 보조하는 행정적 사항의 행정자료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표로 정리한 것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공연예술 행위과정에 따른 발생자료

행위 단계	행위과정		행위 주체	발생 자료	유형
공연 전 (기획)	공연계획		기획자	작품 제안서, 서신 및 서한, 기획서, 회의록, 컨설팅자료	인쇄, 전자자료
	작품(대본, 음악, 안무)선정		기획자, 연출가, 작가	공연 대본집(대본 등) 초안, 작품 선정 사유서, 서신 및 서한, 공연 대본집 수정사항, 완성 공연 대본집, 출판 도서자료(회곡집 등)	
	작품 분석		연출가, 무대감독, 배우	연출대본, 연출 노트, 무대감독노트	
	배우 캐스팅 및 스태프진 결정		기획자, 연출가, 감독	배우, 무용수 및 스태프진 이력서, 기획서, 인력풀자료, 계약서	
공연 전 (준비)	디자인 조합	무대장치	연출자, 무대감독, 스태프진	무대 계획도, 무대 모형, 무대 디자인	모든 유형
		조명		조명 계획도	
		의상		의상 계획서, 의상	
		분장		분장 계획서	
		음향		음향 계획서	
		소품		소품 계획서	
	연습		연출가, 무대감독, 배우	연출대본, 연출 노트, 연습일지, 무대감독 노트, 배우대본, 배우노트	
	총연습(프리뷰)		연출가, 무대감독, 배우, 스태프진	공연 홍보물, 사진, 동영상, 보도자료, 티켓, 프리뷰 상황 및 평가 정보	
공연	실제 공연		연출가, 무대감독, 배우, 스태프진, 관객	사진, 동영상, 보도자료, 포스터, 티켓	인쇄, 전자자료
공연 후	무대 인사		배우, 관객	커튼콜 관련 자료(사진, 동영상 등 이벤트 자료)	
	검토와 수정		전체 참여자	수정 제안서, 회의록, 공연 최종평가서	
	관객 관리		공연단체 행정부서	이벤트 관리 자료(당첨자 명단 등 고객 목록), 관객 소감문자료, 통계자료, 보고서	
	공연 비평		관객	리뷰 및 비평자료	
	공연 녹화 매체 제작		제작 업체 및 관련자	제작 업체 관련 계약서, 계획서	
	제작 매체 판매		공연단체 행정부서, 제작업체	제작 매체 관련 판매계획서, 홍보자료	
	정산		공연단체 행정부서	공연 수입, 매체 수입, 기타 수입 등 회계정산자료, 결산보고서	
전체 과정				공연 행위들을 보조하기 위한 행정, 회계자료	

지금까지 살펴본 공연예술의 생산과정과 특성, 그리고 공연예술자료의 유형을 통해 공연예술자료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한 자료의 생산에 다양한 주체가 관여된다는 점이다. <표3>의 행위 프로세스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 자료의 생산에 있어 다양한 사람들이 관여한다. 예를 들어 희곡집의 경우 이를 집필한 작가와 이를 출판하는 출판사가 관여하며, 이 희곡집은 다시 대본 작가가 공연의 대본으로 재창작하게 된다. 이 때문에 공연예술자료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에서부터 실질적인 개별 자료에 이르기까지 한 자료를 전부 책임질 수 있는 특정한 주체라는 것을 정하기 어렵다. 즉 ‘공연’이라는 결과를 보기 위해 수많은 개인과 단체가 뭉치며 각각 고유한 맥락을 출현시킨다. 이를 온전히 담아내는 것이 공연예술자료를 정리하는 핵심일 것이다.

둘째로, 도서 등 서지자료, 실제 공연에서 나타나는 공연사진, 공연 녹화 동영상과 같은 시청각 및 영상자료, 전자자료, 박물관 자료, 이들을 전 과정에서 관리하고 보완하는 행정 자료 등 공연 준비 단계부터 공연 이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유형의 자료들이 도출된다. 이렇게 다양한 유형을 가지는 자료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정리되기 어렵고, 각기 상이한 정리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로, 별도의 기기들을 필요로 하는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도출된다. 특히 시청각자료의 경우, 이들은 사용하거나 접근하려면 별도 재생기기나 정보이용 기기 등 또 다른 관리기기의 사용이 필수적이다(정혜원, 2007). 아울러 전자 자료도 전 과정에 걸쳐 나타나는 매체 종별로, 전자 자료 정리와 기술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되어야 한다. 이는 곧 공공기록과 같은 일반기록들 보다 많은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로, 공연은 특정한 작품의 창작과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표 1>의 행위과정을 살펴보면 미리 창작된 작품을 선정하여 이를 공연이라는 표현물로 재탄생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2 공연예술자료의 정리 및 기술

우리가 어떠한 기록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기록이 지닌 특정한 정보를 필요할 때 접근하여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록물의 내용, 구조, 맥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지적 통제’와 필요할 때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물리적 통제’가 모두 필요하다(서혜란, 2013). 이와 관련된 사항을 집약한 것이 출처주의와 원질서 존중의 원칙이다(이승일, 2006). 그러나 이들은 그 태생부터 공공의 기록, 예컨대 특정한 물리적인 행정조직체계에서 파생된 기록들을 정리하고 기술하기 위해 탄생한 원칙이다. 이들이 독특한 특성을 지니며, 민간의 자료인 공연예술자료를 정리함에 얼마나 적합할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아울러 이 원칙들을 근간으로 한 다계층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ISAD(G) 또한 공연예술자료를 정리하고 기술하는데 얼마나 적합할지 심층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록관리학의 전통적인 원칙인 출처주의와 원질서 주의와 이를 근간으로 한 ISAD(G)가 공연예술자료를 정리하고 기술할 수 있는 원칙으로 적합한지 그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본다.

2.2.1 출처주의 원칙과 원질서 유지의 원칙

‘출처주의 원칙’은 같은 출처의 기록을 함께 모으며, 다른 출처의 기록과 뒤섞이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 원칙이다(기록학 용어사전, 2008). 여기서 출처는 기록을 생산하거나 모아서 유지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관을 가리킨다(서혜란, 2013). 즉 개인이나 기관의 단일적인 물리적 출처로 기록을 한데 모아, 관리하는 원칙이다.

‘원질서 존중의 원칙’은 기록을 정리할 때 기록을 생산하고 활용하던 당시에 기록을 분류하고 편철하였던 방식과 순서를 존중하여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기록학 용어사전, 2008). 이처럼 기록을 원질서대로 유지하면 각종 맥락(기록과 기록 간의 관계, 기록과 업무 흐름 간의 관계 등)을 기록의 원질서로부터 추론 가능한 이점이 있다. 이 원칙은 공연예

술자료에 있어서는 공연예술 행위과정과 이에 관여한 많은 개인과 단체의 역할과 그 활동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앞서 제시된 <표1>이 공연예술자료의 원질서가 될 것이다.

이들 원칙은 프랑스의 ‘퐁 존중의 원칙’에서 근원되었다. ‘퐁 존중의 원칙’은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기관·조직·가족·개인 등을 모아 하나의 ‘퐁’으로 구성, 입법 행정, 통치, 사법, 역사의 총 5개 영역으로 제시한 것이다(서혜란, 2013). 여기서 ‘퐁’이란 하나의 조직, 가문 또는 개인이 생산하고 수집한 기록 전체를 가리킨다.(기록학 용어사전, 2008). 따라서 이들 원칙은 물리적 특정 행정조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 출처주의 원칙에서 말하는 ‘출처’가 기록 생산과 보존 맥락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원칙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의 활동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기관의 조직체계 및 구조가 전과는 판이하게 변화한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기관 조직체계 및 구조는 전과 달리 유동적 성격을 가지며 물리적으로만 존재하지도 않는다. 또한, 기관의 기능 및 책임에 대한 재정의·신설·폐지·통합·분산 등이 매우 빈번하다. 이 과정에서 부처의 명칭 변화는 물론이거니와 기능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는 기존의 생산 맥락, 즉 출처를 변화시키므로 기존 출처를 통해 고유한 정보와 생산맥락을 발견하기 어렵게 하는 것이다. 아울러 네트워크 발달로 전자기록이 등장하며 이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전자기록은 부·처의 경계를 넘는 다양한 출처와 네트워크를 통해 링크되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 관리된다. 따라서 전통적 개념에서 이야기하는 책임 있는 생산자나 내력, 출처 등을 규명하기 어렵다(방효순, 2002). 이처럼 전과 다른 기록물 환경이 도래하면서 새로운 이론적, 개념적인 정리 원칙이 요구되었고, 이에 유럽에서 ‘기능적 출처’가 제기되었다. 기능적 출처는 출처를 해당 기록이 생산된 기능의 계통 또는 기록물을 생산 저장 보존한 각종 내력 정보의 기준에 따라 규명하는 것이다(기록학 용어사전, 2010). 즉 출처를 기존의 물리적 조직단위로 바라보지 않고 기능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조직변화에 따른 기능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조직 기능 수행이 조직의 계통구조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을 반영하는 현실적 대안이라 말할 수 있다(방효순, 2002). 하지만 기능적 출처는 곧 다른 문제에 봉착하였다. 행정 조직이 다원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출처가 단 하나가 아닌 경우가 늘어나 버렸기 때문이다. 기능 출처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전거제어나 색인 등의 서지적 방식을 도입한다. 이는 일정 조직을 품의 구성단위로 삼되, 기록의 맥락에 관한 전거 레코드나 색인을 별도로 구축하여 그 변동 내력을 관리한다면 품이 갖는 전체성의 장점은 유지하면서도 조직이 갖는 유동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한편 호주의 아키비스트인 피터 스코트(Peter scott)는 전거 제어나 색인 등은 단순히 기록이 발견되는 경로를 의미할 뿐 기록 자체의 변동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이경래, 2014). 다중 출처주의를 제안하였다. 당시 호주는 행정단위 및 정부기관의 기능 재분장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직제 변천 과정에 따라 기록을 지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표하고 있었다. 피터 스코트는 기록 지적 통제의 기반 계층이었던 레코드그룹(품) 대신 기능에 기초한 시리즈 그룹(function-based series) 개념을 제안하게 된다. 이 각각의 시리즈들은 현용 기록의 생산 및 관리에 참여한 여러 생산자에 대한 정보를 서로 다중적으로 링크하여 행정적 기능 변화가 나타남에도 그 변화의 내력을 유기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이승억, 2002). 그러나 다중 출처주의는 기록을 생산한 여러 주체들을 반영 할 수는 있어도 기록 생산에 관여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포괄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평행출처가 제안되었다. 평행출처주의는 동시적 다중 출처주의로 정의된다. 이는 기존 기록의 생산 주체가 곧 저작자라는 인식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예컨대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 저작자 외에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을 기록 생산 주체이자 출처로 복원하여 관련 맥락과 환경을 풍부하게 기술하는 방법과 도구를 제공한다.

또 한편으로 평행 출처주의가 나타난 이유는 호주가 그간 사용하던 백인 관료체제 중심의 다중 출처주의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류 밖에 존재하던 원주민 공동체는 후기식민사회

로 접어들며 호주 사회의 중심적인 문화적 실체로 발돋움하였다. 백인의 관점 기록에 더하여 원주민들 또한 또 다른 중요한 주체로 기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평행 출처주의를 주장한 호주의 기록학 연구자인 크리스 헐리(Chris Hurley)는 뉴질랜드의 마오리족 예를 들어 이를 설명하였다. 뉴질랜드의 토지 문서 생산을 실현한 것은 기존의 출처인 ‘저작자’이지만 실제 토지 생산에 있어 중요한 것은 마오리족으로, 이들 마오리족이 기존의 저작자와 함께 평등하게 분류/기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출처가 다를 경우에 기록은 상당히 다른 콘텐츠를 생산하기 때문에 향후 호주의 아카이브 관리 시스템은 기존 주류 기록관리시스템과 더불어 호주 원주민들 출처로 하는 기록관리 시스템을 동등하게 구축해 이중의 기록관리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였다(이경래, 2014). 이러한 출처의 해석은 공연예술자료의 정리에 있어 적용될 여지가 많아 보인다.

예를 들어 실제 공연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연기자가 무대에 올라 연기를 해야 한다. 하지만 연기자만으로는 공연을 완성할 수는 없다. 무대를 디자인한 무대 디자이너, 무대 조명을 담당하는 조명 스태프 등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의 협동이 있어야 가능하다. 평행출처 개념은 연기자 외에도 수많은 이해당사자를 정리하여 기술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것이다. 이로써 공연예술자료의 맥락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2.2.2 ISAD(G)

국제기록관리기관협의체(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ICA)는 기록 관리의 표준화와 ‘협력적 데이터 교환’을 목표로 ISAD(G)를 제정하였다. ISAD(G)는 기록관리 국제 표준으로 정부의 공공기록물 관리는 물론 다양한 기록물의 기술을 위한 표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ISAD(G)는 기록이 지닌 맥락을 보존하기 위해 전통적인 정리 원칙들을 근간으로 한 다계층기술(multilevel description)을 정리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다계층기술은 가장 큰 기록물의 집단적 단위에서 기록물 기술을 시작하여 점점 하위 계층으로 나아가며 기술하는 것이다. 이는 기록물이 집단적 단위로 기술된다는 관점을 지닌 기록관리 실무적 관행에서 비롯되었다. 이 계층 기술은

퐁(fonds): 생산자의 활동이나 기능의 수행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생산, 축적, 사용된 기록전체.

컬렉션(Collection): 기록의 출처에 상관없이 공통점에 따라 모은 기록의 인위적인 조합.

시리즈(series): 파일링 과정이나 동일한 활동(생산, 접수, 사용)에 있어 발생한 관계 때문에 하나의 단위로 유지된 문서

파일(file): 생산자의 현재 이용이나 기록물정리 과정에서 같은 주제 또는 특정한 행위와 관련이 있어 함께 묶여진 조직화된 기록의 단위.

아이템(item): 지적으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기록의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은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수준으로. 둘째, 해당 기술 수준에 관련된 데이터만을 기술한다. 셋째, 한 집합에 속하는 서로 다른 수준의 기술들은 함께 연계시켜 통일성을 유지한다. 넷째, 어떤 기록물 집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보는 그것이 해당되는 최상위 계층에서만 기술하여 정보의 중복을 피한다.

이러한 다계층 기술을 통한 ISAD(G)의 구성은 7개 영역으로 구별되어 있으며, 26개의 기술요소를 책정하고 있다. 이 영역과 기술요소를 표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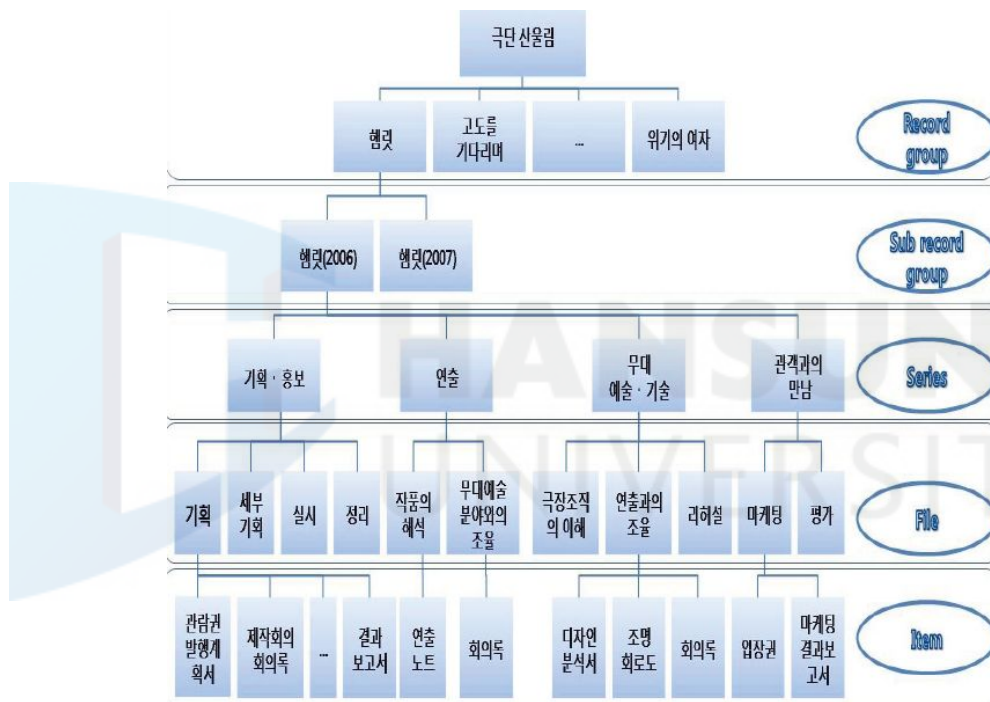
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4> ISAD(G) 영역과 기술요소 (출처: ICA, 2000)

영역	기술요소	필수요소 여부
1. 식별영역	1. 참조코드 2. 표제 3. 생산 날짜 4. 기술계층 5. 기술단위의 규모와 매체	필수
2. 배경영역	1. 생산자명 2. 행정연혁/개인이력 3. 기록물 이력 4. 수집/이관의 직접적 출처	생산자명만 필수요소
3. 내용과 구조영역	1. 범위와 내용 2. 평가, 폐기, 처리일정 정보 3. 추가 4. 정리시스템	해당 없음
4. 열람과 이용조건 영역	1. 열람조건 2. 재생산(복제) 조건 3. 기록물의 언어와 규약 4. 물리적 특성과 기술적 요구 사항	해당 없음
5. 연관자료 영역	1. 원본의 존재와 위치 2. 사본의 존재와 위치 3. 관련 기술단위 4. 출판주기	해당 없음
6. 주기 영역	1. 주기	해당 없음
7. 기술 통제 영역	1. 아키비스트 주기 2. 규칙 및 협약 3. 기술 일자	해당 없음

<표3>의 영역과 요소들은 적용될 수 있는 계층에서 활용되며 동일 출처에서 비롯된 기록들을 집합적이며 계층적으로 묶어 준다. 이렇게 자료와 자료가, 계층과 계층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구조는 기록물 생산 배경과 조직적 연원과 같은 맥락을 보다 쉽게 파악하게 한다. 하지만 ISAD(G)로 공연예술자료를 온전히 기술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공연예술자료의 생산에는 수많은 이해당사자들과 단체들이 관여하는데 이들은 공연을 탄생시키기 위한 이해관계일치로 잠시 뭉쳤을 뿐, 공연의 막이 내림과 동시에 다시금 흩어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파생된 자료는 개인이 가지고 있을 수도, 단체가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산된 자료를 나

중에 다시 모으려고 할 때 이들 중 무엇을 공연예술자료의 출처로 판단해야 하는가? 만약 출처를 자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로 한정한다면 각각의 출처인 개인(연출가)풍/개인(배우)풍/개인(작가)풍, 단체(극단)/단체(극장)의 풍, 등으로 자료가 집중될 것이다. 이 컬렉션들이 출처, 즉 개인이나 단체의 생애나 연혁 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공연을 설명하기 위함이라면, 맥락의 보존이 가능한 것인가? 즉 공연예술에서 출처는 단순히 생산자와 자료의 일대일 관계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그림1> 극단연극기록의 정리 사례 (출처: 박민구, 2009)

<그림1>은 단일 출처인 산울림 극단을 기준으로 하여 계층으로 구별한 것이다. 이때 기존의 전통적인 단일 출처주의와 풍 개념에 따르면 산울림 극단이 생산하거나 소지한 자료 외의 다른 자료는 이 풍(산울림 극단 풍)에 담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까닭에 관객이 직접 소장하고 있는 비평자료, 공연장소를 제공한 극장의 자료, 재정을 맡은 후원사의 자료, 티켓을 판매한 티켓 중개사의 자료, 산울림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 성

격의 배우들, 심지어 햄릿 원작을 쓴 셰익스피어에 관한 정보가 다른 품에 기술되어야 한다. 공연예술자료가 내포하는 생산 맥락 정보가 흩어지게 되는 것이다. 공연예술자료가 가진 맥락을 온전히 보존하려면 ‘공연’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자료가 모여야 한다. 더불어 이 자료들은 더불어 이 자료들은 작가의 관점에서는 지금껏 집필한 희곡목록으로, 극장의 경우에는 극장연보형식으로, 극단의 경우 극단 연출목록 등, 자료에 접근하는 관점에 따라 자료가 입체적으로 보여 져야 이들이 가진 맥락을 온전히 표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ISAD(G)는 공연예술자료의 탄생에 있어 관련한 각각의 이해당사자들이나 단체들의 활동을 설명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 예로 <그림2>을 살펴보자.

한성대 AtoM 실습사이트

극단 예감

File KR/HANSUNG/A2/Sub_FOMDS1/C1/S1/Sub_S6/P2/F2 - 정동 문화일보 홀 공연

(주) 예감 > 국내사업부 > 공연예술기록 > 연극 > 마살아츠퍼포먼스 > 마살아츠 퍼포먼스 '점프' > 정동 문화일보 홀 공연

Identity area

Reference code atom_1 KR/HANSUNG/A2-KR/HANSUNG/A2/Sub_FOMDS1-KR/HANSUNG/A2/Sub_FOMDS1/C1-KR/HANSUNG/A2/Sub_FOMDS1/C1/S1-KR/HANSUNG/A2/Sub_FOMDS1/C1/S1/Sub_S6-KR/HANSUNG/A2/Sub_FOMDS1/C1/S1/Sub_S6/P2-KR/HANSUNG/A2/Sub_FOMDS1/C1/S1/Sub_S6/P2/F2

Title 정동 문화일보 홀 공연

Date(s) 2003-09-05 ~ 2003-10-05 (Creation)

Level of description File

Context area

Name of creator 극단 예감 (2003년 3월 17일)

Name of creator 김경훈

Name of creator 이준상

Name of creator 이옥현

Name of creator 박계환

Name of creator 정옥수

Repository 극단 예감

Access points

Subject access points 현대연극

Place access points 대한민국 > 서울특별시 > 중구 > 새문안로 > 문화일보 홀

Reports

Export

Dublin Core 1.1 XML

EAD 2002 XML

Related subjects

현대연극

Related places

대한민국 > 서울특별시 > 중구 > 새문안로 > 문화일보 홀

<그림2> ISAD(G) 생산자 항목 (AtoM 소프트웨어로 구현3))

<그림2>은 ‘점프’ 공연을 ISAD(G)로 정리한 것의 예시이다. 그림에서 배경영역의 생산에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은 모두 ‘Creator’로 기술되어 있다. 김경훈, 이준상, 이옥현 등이 이 자료의 생산에 있어 무슨 역할을 담

3) AtoM은 ISAD(G)를 웹상에 구현한 것으로 소규모 아카이브 등에 사용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다.

당했는지, 맡은 역할에 따라 어떠한 활동을 펼쳤는지에 대한 맥락 서술이 어려운 것이다.⁴⁾ 이들이 행한 다양한 역할과 활동들을 ISAD(G) 구조 내에서 구현하려면 주기영역에 기술하거나 전거나 색인을 통한 방식 밖에 없다. 하지만 기록은 관련 기록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치와 의미가 파악되는 지식의 대상물이다. 다시 말하여, 기록은 기록과 기록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가 파악되는데 이 정보를 주기영역에 기술하여 문제가 해결된다면 애당초 기록을 서로 관계 맺어줄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한편 전거나 색인을 통한 방식은 그 기록이 어디 위치하는지를 알 수 있을 뿐 기록과 기록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맥락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다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울러 ISAD(G)의 계층은 한 번 구축되면 변경될 수 없기에 조직 변화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대처하기 어렵다. 즉 안정적인 조직 구조를 선결요건으로 가지고 있기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살펴본 ISAD(G)는 공연예술자료의 기술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파악되었다. 첫째, 다 출처 반영 어려움, 둘째, 생산에 관여한 이해당사자들과 단체들의 상세한 역할 기술 불가. 셋째, 조직 등의 집합체가 변화하는 것을 유동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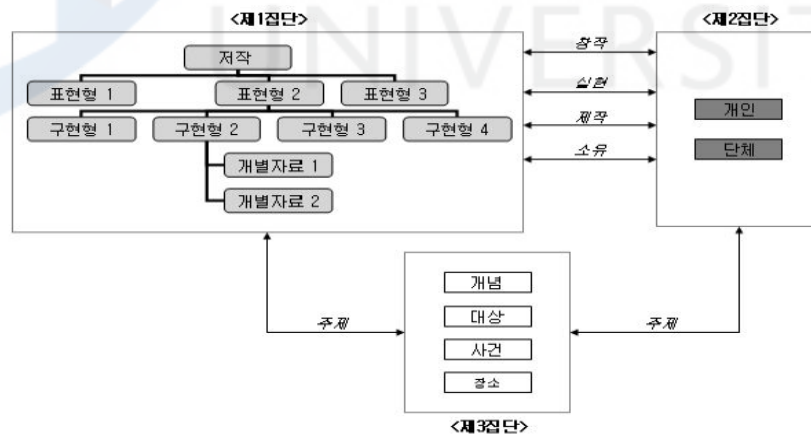
4) 그림에서 (주)예감은 생산에 관여한 단체가 아니며 현재 자료의 소장처(Repository)를 말한다.

2.3 FRBR

여기서는 목록의 본질적 기능인 집서기능에 충실하다고 평가 받고 있는 FRBR모델(송선경, 2010)을 살펴보고 공연예술자료 정리 및 관리에 접목할 수 있을지 탐구해 보고자 한다. 이를 응용한다면 공연예술의 다양한 파생 자료를 한 곳에 모아 유기적, 즉 입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2.3.1 FRBR 구성과 개체 특성

FRBR는 개념 모델(conceptual model)으로써 peter Chen(Chen 1976)이 제안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개체-관계모델을 기초로 하고 있다. 즉 개체(entity), 속성⁵⁾(attribute), 관계(relationship)의 분석을 통해 개체-관계구조를 도출하는 일종의 개체-관계모형이다. 이들 모형은 <그림3>과 같이 구성된다.



<그림3> FRBR 모형 개요. (출처: 노지현, 2008)

5) FRBR에서 속성은 이용자 지향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찾아내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제공된다. 또한 속성들에 사용되는 단어들이나 문자열들은 그 속성의 가치를 부여한다. FRBR이 제공하고 있는 속성 리스트는 다음을 참고하라.

IFLA. (1998).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Final Reports. 김태수 역. 서지레코드의 기능상의 요건. 국립중앙도서관

이들은 지적·예술적 산물 집단인 1집단과, 지적·예술적 내용과 물리적 생산 및 배포 또는 관리에 책임을 지는 집단인 2집단, 지적·예술적 활동의 주제 집단인 3집단을 포함하여 3집단 체계를 지니고 있다.

한편 제1집단의 저작(work)은 지적·예술적 독창성을 가진 창작물의 지적 내용으로 정의된다. 한편 창작물에서 파생된 지적내용들은 단 하나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다.

FRBR은 이와 같은 저작들을 보다 상위에서 묶어주는 개념이 존재한다. 바로 슈퍼저작이다. 이는 저작의 집합체로서 각각의 저작보다 상위의 추상적인 개념을 뜻한다. 즉 한 창작물에서 파생된 모든 각각의 저작을 연결하는 인공적인 구성자이다(VTLS, 2004). 예를 들어 하나의 창작물을 ‘햄릿’이라 가정할 때 이 햄릿은 ‘공연 햄릿’, ‘소설 햄릿’, ‘공연 햄릿’이 된 또 다른 ‘공연 햄릿()’ 등 여러 지적 내용을 파생시킨다. 이들을 보다 상위에서 묶어주는 것이 바로 슈퍼저작이다.

1집단의 개체인 저작 다음으로 표현형(expression)은 하나의 저작을 지적·예술적으로 실현한 것으로 공연의 표현, 음성, 영상, 객체, 동작 등의 조합을 통해 표현된다. 이때 FRBR에서는 표현형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다면 저작의 다른 표현형으로 간주하기에 공연예술자료의 일회성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예를 들어 저작(공연)이 다른 날짜나 시간에 공연되면 저작의 다른 표현형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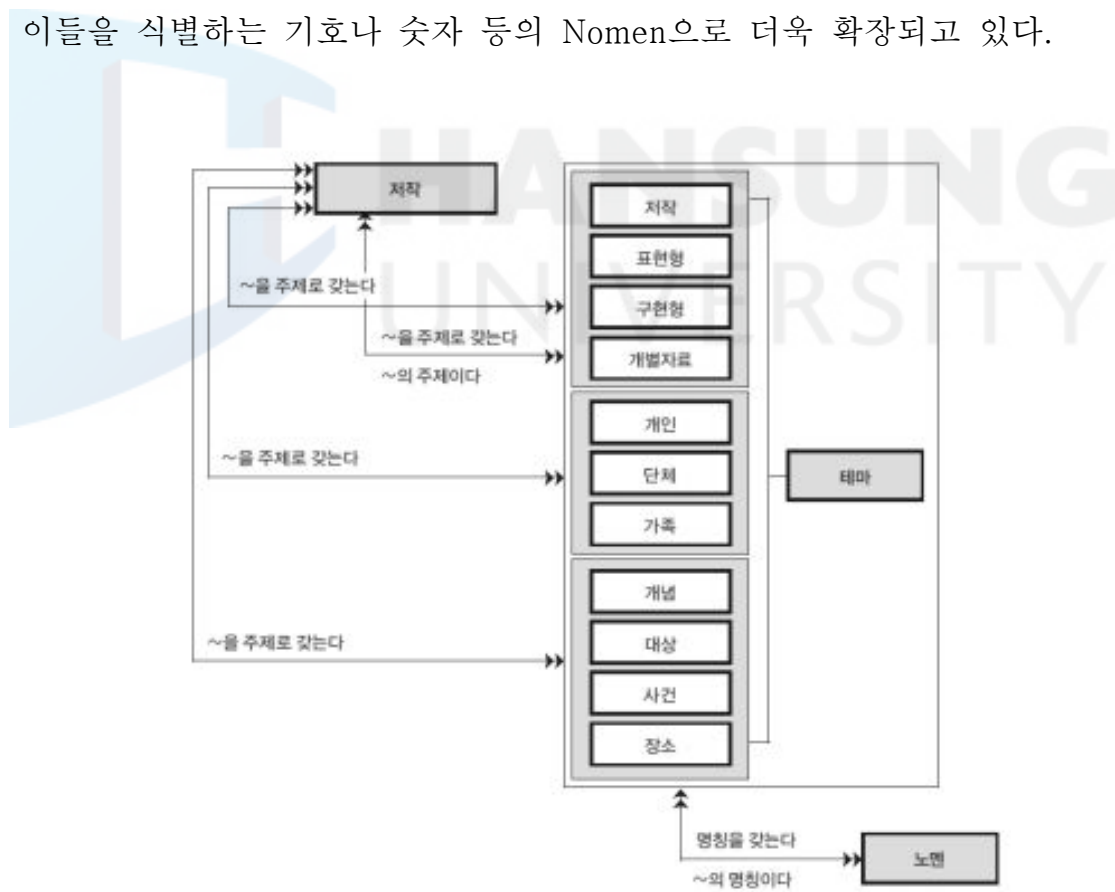
구현형(manifestation)은 저작의 표현형이 물리적으로 구체화 되어 기록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DVD, CO-ROM, 도서, 지도, 잡지, 녹음자료, 웹자료 등 다양한 매체에 기록된다. 구현형은 본디 물리적 성격을 가지지만 때로는 추상적 개념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공연이 DVD로 대량 녹화되어 약 1000여장 있다 가정해보자. 이때 구현형은 저작(공연)을 특정한 물리적으로 구현한 DVD가 되며, 1000여장의 DVD를 모두 포괄하는 추상적 개념이 된다. 공연예술자료 기술 시는 이 같은 모호함을 배제하기 위해 구현형 단계에서 적절한 수량 및 부피가 서술되어야 한다. 더불어 공연예술자료는 유일본 성격의 메뉴스크립트가 다수 포함되므로 구현형과 개별 자료가 겹칠 수 있다. 따라서 이 둘의 관계 기술도 필요하다.

개별 자료(item)는 구현형 각각의 실제 대상을 말한다. 즉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등의 기관에서 소장하게 되는 하나의 예이다. 공연예술자료에서는 회곡집, 팸플릿, 포스터, 티켓, 공연녹음자료 등이 있다. 이처럼 개별 자료는 보통 단일 객체이지만, 둘 이상의 물리적 객체를 포함하기도 한다.

2집단은 1집단의 존재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개인과 단체 개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과 단체는 저작의 창작이나 실현 및 주제와 관련이 있을 때 개체로 취급되며 단체는 회의체, 탐험대, 전시회 등을 포함한다(박지영, 2008).

3집단은 1집단과 2집단의 주제를 설명하는 것으로 개념, 객체, 이벤트, 장소의 네 개체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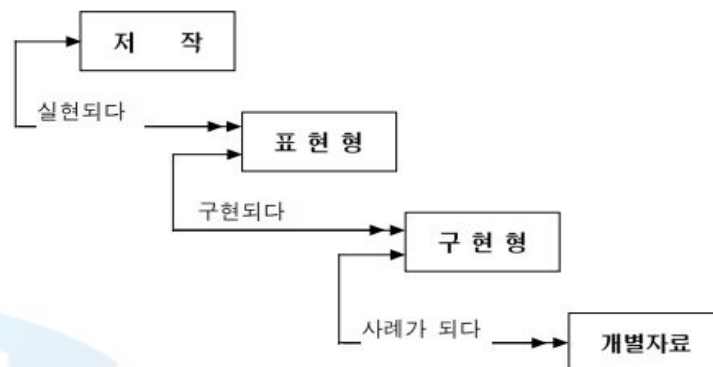
이 같은 개념모델은 FRBR은 최근 FR SAD(Functional Requirements for Subject Authority Data)에 이르러 개체들을 주제로 묶는 Thema와 이들을 식별하는 기호나 숫자 등의 Nomen으로 더욱 확장되고 있다.



<그림4> FRSAD 개체 모형(출처: 박지영, 2012. 원출처: IFLA, 2010)

2.3.2 FRBR 개체 관계

관계는 개체 간의 연결을 표현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림5>은 제1집단의 저작과 표현형, 표현형과 구현형, 구현형과 개별 자료를 연결한 것으로 FRBR 개체-관계 모형구조의 핵심이다. 이들은 각각 실현, 구현, 사례관계로 정의된다.



<그림5> FRBR 제1집단 개체와 주요 관계
(출처: 김태수 역, 1998. 원출처: IFLA. 1998)

첫 번째 관계인 저작과 표현형의 관계는 저작이 표현형을 통해 ‘실현’되었음을 나타낸 것이다. 즉 지적·예술적 독창성을 가진 창작물인 저작이 표현형을 통하여 실현되었음을 뜻한다. 이는 반대로 표현형은 저작의 실현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표현형을 저작의 지적 예술적 실현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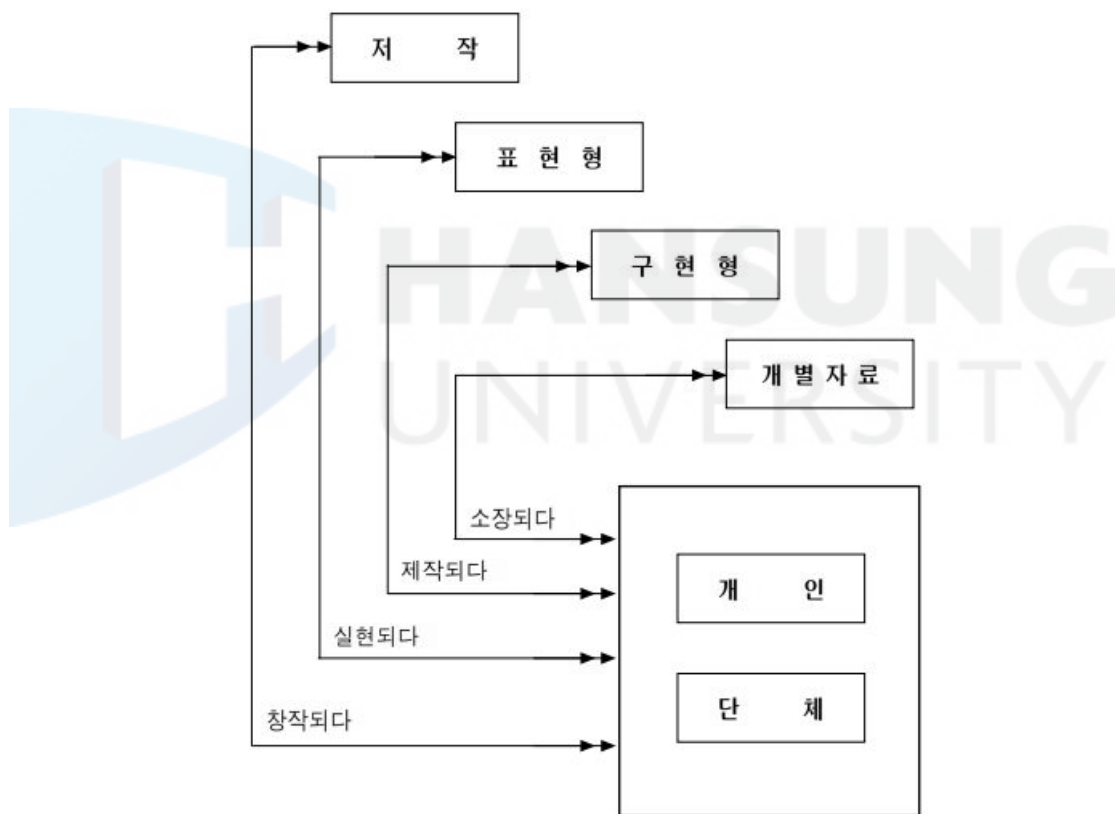
두 번째 관계인 표현형과 구현형의 관계는, 표현형이 구현형으로 ‘구현’된 것을 가리킨다. 이는 반대로 구현형은 표현형의 구체적 표현임을 나타낸 것으로 구현형이 표현형의 구체적 표현이라는 것을 정의한다.

세 번째 관계는 구현형과 개별 자료의 관계는, 구현형의 각각의 개별적인 ‘사례’가 개별 자료란 것을 가리킨다. 즉 개별 자료는 구현형의 사례라는 것이 정의된다.

이렇게 FRBR에서 제시된 관계들은 비록 그림에서는 각각 구분하여 제

시되고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하나의 연속적인 고리로 작용한다. 다시 말하여 저작에서 표현형으로의 관계는 표현형에서 구현형으로의 관계를 통하여 연결되고, 이 두 관계는 다시 구현형에서 개별 자료의 관계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표현형과 이 표현형을 구현한 구현형 간의 관계를 설정할 때, 구현형은 동시에 그 표현형을 통하여 실현된 저작과 논리적으로 연결되고, 표현형은 그 표현형이 실현한 저작과 연결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FRBR에서 또 다른 관계로 제시하고 있는 제1집단과 제2집단 간의 관계이다.



<그림6> FRBR 제2집단 개체와 책임 관계
(출처: 김태수 역, 1998. 원출처: IFLA. 1998)

이들은 <그림6>에서 보듯이 관계 유형은 ‘창작’, 실현, 제작, 소유(소장)의 네 관계로 제1집단과 연결된다.

이 각각의 유형은 첫째, 창작관계는 저작의 지적·예술적 내용에 대해 창작 책임을 진 개인과 단체가 저작을 연결한다. 이로써, 각각의 저작에 책임을 진 개인과 단체를 식별하는 동시에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의 모든 저작을 그 개인이나 단체와 연결하는 기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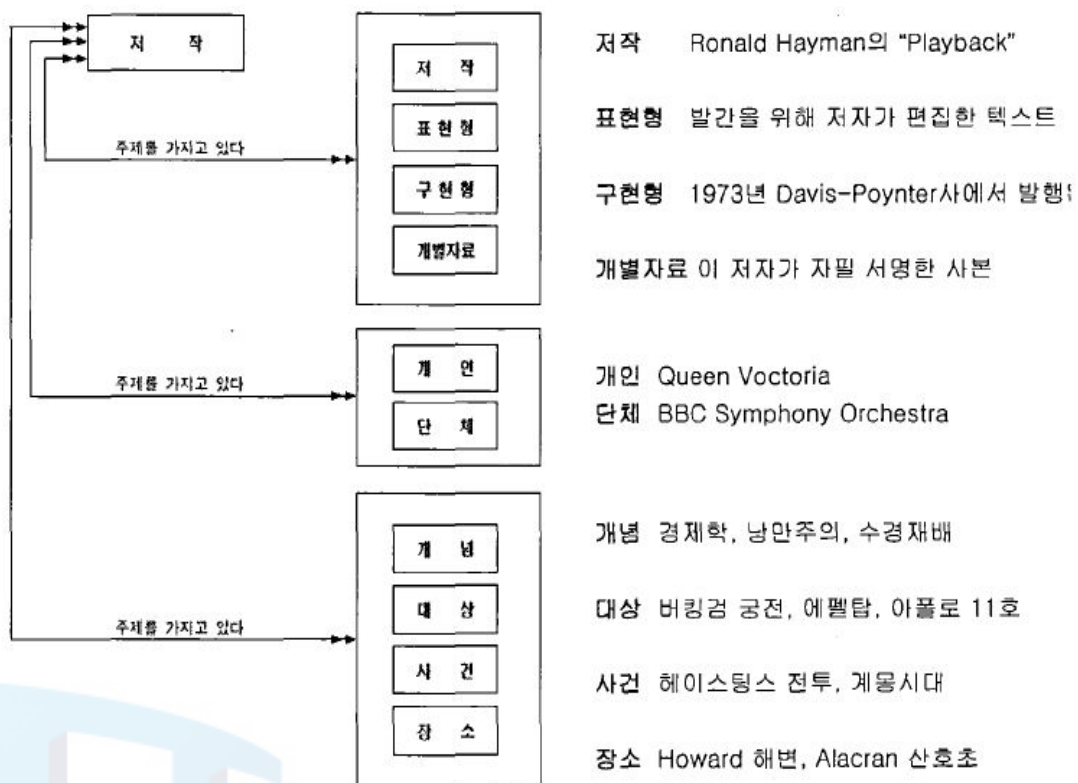
둘째, 실현관계는 표현형과 저작의 실현에 책임을 진 개인이나 단체와 연결한다. 첫째 관계인 창작관계와는 다소 유사한데, 이들의 차이를 살펴보면, 창작관계의 개인과 단체는 저작의 지적·예술적 내용에 책임을 가지며, 표현관계의 개인과 단체는 저작이 표현된 표현형의 지적·예술적 실현이나 실행에 따른 구체적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 같은 표현형과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의 논리적 연결을 통해 각각의 표현형에 책임을 진 개인이나 단체를 식별함과 더불어 그들 개인과 단체가 실현한 모든 표현형을 그 개인이나 단체와 연결하는 기준이 된다.

셋째, 제작관계는 구현형과 이 구현형의 발행이나 배포, 제작에 책임을 진 개인이나 단체와 연결된다. 이로써 구현형의 제작이나 배포에 책임을 가진 개인 혹은 단체를 식별하고 더불어 개인이나 단체에서 제작하거나 배포한 모든 구현형을 그 개인이나 단체와 연결하는 기준이 된다.

넷째, 소유관계는 개별 자료와 이 개별 자료의 소장자인 개인이나 단체를 연결한다. 이에 이 관계는 개별 자료를 소장한 개인이나 단체의 식별 기준이 되고 개인과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모든 구현형을 개인과 단체와 연결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세 개의 집단에 속한 모든 개체는 주제관계를 통해 개체인 저작과 연결된다, 즉 주제관계는 저작 자체를 포함하여 FRBR의 어떠한 개체라도 저작의 주제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다시 말하여 저작은 개념이나 대상, 사건, 장소에 관한 것 일수도, 개인이나 단체에 관한 것일 수도, 아울러 표현형과 구현형 그리고 개별 자료에 관한 것일 수 있음을 이 관계가 표현하는 것이다. 이처럼 저작과 관련된 주제 개체를 논리적으로 연결함으로써 각각 저작의 주제를 식별하고, 더불어 특정 주제와 관련된 모든 저작을 그 주제와 연결하는 기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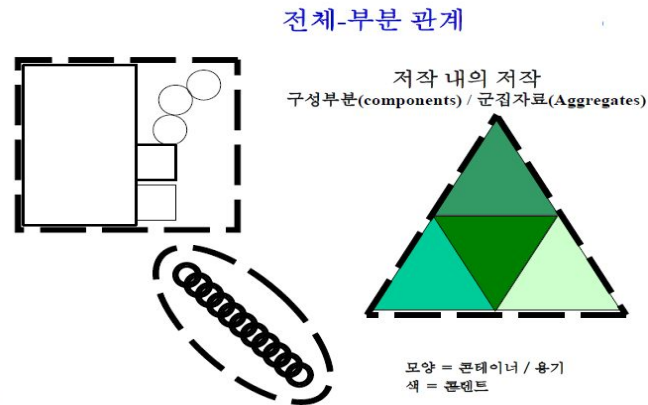
지금까지 설명한 제3집단의 관계와 사례는 <그림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7> FRBR 제3집단의 개체와 주제 관계 사례 (출처: 김태수 역, 1998. 원출처: IFLA. 1998.)

한편 FRBR은 이러한 개체 관계를 통해 각각의 개체 가치와 특징 파악이 가능하다. 이는 FRBR이 저작이나 표현형 개체에서 한 개체가 다른 개체와의 ‘자치’(autonomy) 정도에 따라 ‘참고의’(referential), ‘자치의’(autonomous)로 개체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성숙, 2007). 여기서 ‘참고’란 한 개체가 다른 개체에 종속되어 있어 그 관계를 벗어나면 거의 가치가 없을 때 사용한다. 한편 ‘자치’란 한 개체가 다른 개체의 참고 없이도 유용하거나,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공연예술의 속편, 별책, 대본, 희곡집, 보완, 번역 등의 관계 유형은 참고가 사용될 것이고, , 번역(번역 과정에서 새로운 지적·예술적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 등의 관계는 자치가 사용 될 것이다. 즉 ‘햄릿’ 공연이 지적·예술적 노력을 통해 되어 ‘온에어 햄릿’이 될 경우 이는 새로운 저작이다. 이때 ‘햄릿’과 ‘온에어 햄릿’을 이어주어 한 저작의 모든 자료를 모은

집합을 꾸릴 수 있으며 그 관계도 파악할 수 있다. 더불어 이들 관계는 전체/부분과 부분 대 부분 관계를 통해 보완 가능하다. 부분 대 부분 관계는 ‘순차’(sequential)와 ‘수반’(accompanying) 또는 ‘동반’(companion)관계를 포함하여 나타난다(Barbara B. Tillett, 2003)이들 사이의 관계는 다음 <그림8>과 같다.



<그림8> FRBR 개체 전체 부분 관계 (출처: 이재선 역, 2003. 원출처: Barbara B. Tillett, 2003.)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FRBR개념 모델이 공연예술자료를 정리함에 있어 적용될 수 있는 특성은 무엇인지 파악하였다.

먼저 FRBR는 첫째, 한 공연에서 파생된 모든 자료를 모을 수 있는 특성. FRBR는 저작을 중심으로 자료를 모으고 각 개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한다(이미화, 정연경, 2008) 아울러 슈퍼저작을 사용하여 원저작과 그에 유기적으로 관련된 서로 다른 저작들을 보여주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통하여 하나의 공연에서 파생되는 모든 것은 물론 한 작품과 관련 있는 작품들을 입체적으로 집약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집약 기능은 대응되는 주체(출처)를 유연하게 관리하여 생산맥락을 좀 더 명확히 표현 가능한 이점이 있다.

둘째, FRBR은 하나의 자료가 서로 다른 실현들로 반복해서 변화하는 것을 기술하는데 효과적이다.(Alexander C. Thureman, 2002) 이것은 표현형의 지적·예술적 내용이 조금이라도 변경되면 표현형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는 FRBR의 특성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공연 ‘햄릿’이 되거나 다른 언어로 변경되었을 때. 지적, 예술적 내용에 변경이 가해진다면 햄릿(저작)의 또 다른 표현형으로 간주한다. 이는 공연예술이 시간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기술할 수 있고, 다양한 참여자 및 관리 주체를 기술하는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한계도 분명 존재한다. 저작과 표현형을 비롯한 개체 정의와 개체 구분이 모호(이성숙, 김태수, 2005)한 한계가 그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로 극장에서 2014.10.11. ~ 2015.03.01. 까지 진행된 공연 관객모독은 연출가 기주봉이 페터 한트케가 집필한 희곡 관객모독을 한 것이다. 이 중 페터 한트케가 쓴 희곡을 저작으로 볼 것인지, 각색된 기주봉의 관객모독을 저작을 볼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아울러 공연은 통상적으로 특정한 기간 동안 한 작품이 반복되어 실연된다. 이 과정에서 도출되는 각각의 표현, 즉 공연들을 어떻게 구별하고 보여줄 것인지 불분명하다.



Ⅲ. 공연예술자료 관리기관 메타데이터

현재 공연예술분야는 자료를 정리하고 기술하는 표준과 그 메타데이터가 확정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연예술자료를 관리하는 기관들은 목적과 사명에 맞춰 메타데이터를 개발하거나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에 이 장에서는 국내 대표적 공연예술관리 기관인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국립국악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의 메타데이터 요소 적용 사례를 살펴보고, 공연예술자료 정리와 기술을 위한 통합 메타데이터 요소를 선별하고자 한다.

3.1 공연예술자료 관리기관 메타데이터 적용 사례

3.1.1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은 2009년에 개관한 국내 최초의 공연예술박물관이다. 국립극장에서 공연예술자료의 정리와 기술을 위해 어떠한 메타데이터 요소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는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하였고, <표5>와 같은 공연예술박물관 자료 관리 지침을 취하였다. 이 자료 지침을 살펴본 결과 공연예술자료의 정리와 기술을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통합자료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시스템의 메타데이터는 기본정보 영역과 자료정보 영역으로 구성된 56개의 메타데이터 요소를 가지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기본정보 영역은 추상적인 공연 그 자체를 설명하기 위한 영역으로 수행기간, 수행단체, 공연장소 등의 22개 메타데이터 요소를 가지고 있다.

자료정보 영역은 전체 공연에서 파생된 개별 자료 기술을 위해 총 34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자료 기본 정보에 관한 20개 요소, 자료의 유형을 기술하기 위한 7개 요소, 자료의 저작권 정보를 기술하기 위한 7개 요소로 세분된다. 특히 자료의 저작권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기술할

수 있는 점이 돋보인다. 그러나 자료를 기록으로 관리하려는 시도, 예컨대 자료를 누가 시스템에 등록하였는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 보존되고 있는지, 보존하며 변화 된 것은 없는지 등의 기록관리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

<표5>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메타데이터 요소 - 계속
(출처: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메타데이터. 2014)

구분1	구분2	속성명	비고
기본정보 (개별 자료의 모태정보) 예) 공연의 경우 기본적인 공연정보에 해당		번호	기본정보 기본항목
		분류유형	
		제목	
		컬렉션	
		시리즈	
		부제목	
		수행기간	
		수행단체	
		수행장소	
		상세분류	
		내용	
		비고	
		공연회차	(이하) 공연의 경우, 추가 항목
		공연일	
		공연시작시간	
		공연종료시간	
		공연시간	
		공연장소	
		장막	
		장막제목	
		장막내용	
		참여인력	

<표5>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메타데이터 요소 2

구분1	구분2	속성명	비고
자료정보 (개별 자료 정보)	자료기본정보	입수번호	자료에 대한 세부정보 항목
		입수유형	
		입수처	
		자료번호	
		자료유형	
		원본구분	
		자료명	
		생산일	
		실물구분	
		실무접수	
		전자화여부	
		전자수량	
		공개범위	
		비공개사유	
		생산자	
		표현언어	
		저작권	
		키워드	
		비고	
		바코드	
	자료유형정보	매체유형	자료의 매체에 대한 정보 항목
		분량	
		색채	
		자료상태	
		규격	
		첨부물	
		비고	
	저작권정보	저작권구분	자료의 저작권 정보 항목
		저작권자	
		보호기간	
		이용허락일	
		사용범위	
		주기사항	
		첨부문서	

3.1.2 국립국악원

국립국악원은 1951년 전통음악과 무용을 보존·전승하고 보급 및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국립 음악기관이다. 특히 2007년과 2008년에 수행한 프로젝트 연구 결과와 국가기록원 메타데이터 표준을 바탕으로 자체 자료관리시스템(국악아카이브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 중이다. 이를 좀 더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 해당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매뉴얼 및 메타데이터 요소를 취할 수 있었다.

국악아카이브관리시스템의 메타데이터 요소들은 총 48개로 폴더, 아이템 정보, 기록관리 정보로 구분되어 사용된다.⁶⁾

폴더는 하나의 공연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기 위한 정보의 집합으로 공연의 제목, 행해진 일시와 장소, 내용 등의 15개 요소들로 구성된다.

아이템 정보는 공연에서 파생된 개별 자료를 기술하기 위한 요소들로 32개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아이템 정보의 기본 사항인 제목, 장소, 컬렉션/시리즈 등은 폴더 정보에서 상속받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개별 아이템만의 고유한 정보만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기록관리에 대한 정보를 기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돋보인다. 기록관리 정보 영역과 요소는 기술된 자료의 사후 처리 과정이나 경과 등을 기술하게 된다. 하지만 요소가 단 하나이며 선택사항인지라 자료를 누가 획득하였는지, 기술하였는지,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지 등의 복잡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상술하기에는 모자란 점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6) 국악원은 저작권에 대한 사항을 국악아카이브관리시스템에서 사용하지 않고 따로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사용하여 이 시스템에서는 저작권에 관한 메타데이터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표6> 국립국악원 메타데이터 요소 - 계속

(출처: 국립국악원 국악아카이브관리시스템 등록자용 매뉴얼, 2013)

구분	메타데이터명	비고
폴더	제목	필수
	일시	필수
	장소	필수
	지역	필수
	자료성격	필수
	컬렉션/시리즈	필수
	국악분류/KDC	필수
	생산정보	필수
	평가정보	필수
	개요	필수
	내용	필수
	키워드	필수
	수집근거	선택
	주최정보	선택
	제작진	선택

<표6> 국립국악원 메타데이터 요소 2

구분	메타데이터명	비고
아이템 정보	아이템명	필수
	일시	필수
	장소	필수
	지역	필수
	자료성격	필수
	컬렉션/시리즈	필수
	국악분류/KDC	필수
	생산정보	필수
	평가정보	필수
	개요	필수
	내용	필수
	키워드	필수
	수집근거	선택
	제작진	선택
	기록유형	필수
	자료유형	필수
	자료구분	필수
	저장매체	필수
	상태검사 외형	필수
	비고	선택
	내용	필수
	실물규격	선택
	수량	필수
	재질/훼손/최종등급	선택
	상자번호	선택
	소장처	필수
	언어	필수
	부가정보	선택
	향후 보완사항	선택
	제작자명	선택
	제작자 소속	선택
	제작일	선택
기록관리 정보	기록관리정보	선택

3.1.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

1979년에 개관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은 2010년까지 도서관으로서의 자료 수집과 정리, 서비스를 제공한 까닭에 자료 수집과 정리 체계에서 도서관적인 전통이 매우 강하게 남아 있다. 도서관계 서지 개체 모델인 FRBR을 기반으로 하는 소장자료 목록입력지침이 그 좋은 예이다. 소장 자료 목록입력지침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전통연희 등 자료 분야별로 입력지침이 명시 되어있다. 더불어 각각의 분야는 FRBR의 영역을 기반으로 한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 자료⁷⁾로 이루어져 있다. 본 절에서는 공연예술에 해당하는 무용, 연극, 전통연희 중 공연예술의 가장 대표적 장르인 연극의 메타데이터 목록 지침을 소개한다. 연극의 메타데이터 요소는 저작, 표현형, 구현형으로 나뉘며, 총 71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저작은 지적·예술적 독창성을 가진 추상적인 내용을 일컫는다. 예술위의 저작은 사용 메타데이터인 작자, 창작연도, 작품구상일 등을 이루어 봤을 때 저작이 공연의 기반이 되는 특정한 아이디어를 기술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메타데이터 요소는 관련저작, 창작년도 등 17개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표현형은 저작이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된 것으로, 예술위의 표현형 메타데이터 요소는 연출자, 참여자, 언어, 상연시간 등 20개 요소가 있다. 이들 요소를 이루어 봤을 때 특정한 개별공연에 관한 사항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공연 기획과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공연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세트로 묶어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구현형은 본디 저작의 표현형이 우리 손에 만질 수 있도록 실체화된 것을 말한다. 예술위의 구현형은 이러한 구현형 개념과 이 구현형의 예시가 되는 개별 자료의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자료 유형, 매체 유형이 동시에 사용되고, 개별 자료에 부여하는 청구기호 등의 메타데이터 요

7) 예술위 입력지침에는 개별 자료영역에 관한 메타데이터 요소는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구현형의 모든 정보를 상속 받는 예시로만 존재한다.

소가 그 예이다. 구현형의 메타데이터요소는 형태에 관한 요소, 재생에 관한 요소 등 총 34개 요소가 있다.

살펴본 예술위의 저작, 표현형, 구현형과 그 메타데이터 요소는 아쉽게도 기존 FRBR의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여 FRBR의 한계인 개체 정의와 개체 간의 구별 모호함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연은 특정한 기간을 두고 여러 회차로 나누어 개별적인 공연들이 도출된다. 예를 들어 햄릿 공연이 2004년 5월~6월로 기간을 두고 이 기간에 햄릿 개별 공연이 수회 공연되는 것이다. 이러한 개별 공연들의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

<표7>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예술자료원 메타데이터 (저작)

(출처: 국립예술자료원. 국립예술자료원 소장자료 목록 입력지침. 2009)

기본 메타데이터	하위 메타데이터	필수여부
표제사항	작품명	필수
	부표제	해당 시 필수
	대등표제	해당 시 필수
	한글표제	해당 시 필수
관련저작		해당 시 필수
저자사항	작자	필수
창작년도		해당 시 필수
초연일		해당 시 필수
최초출판일		해당 시 필수
언어		해당 시 필수
작품구성		해당 시 필수
분류기호		선택
주제명		선택
이용대상층		선택
등장인물	등장인물수	해당 시 필수
	등장인물명	해당 시 필수
작품해설		선택

<표8>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예술자료원 메타데이터(표현형)

기본 메타데이터	하위메타데이터	세부메타데이터	필수여부
	표제명		필수
	행사명		해당 시 필수
	공연일자		해당 시 필수
	공연장소		해당 시 필수
참여자정보	연출자		필수
	작곡자		해당 시 필수
	안무자		해당 시 필수
	번역자		해당 시 필수
	출연자	출연자명	해당 시 필수
		역할	해당 시 필수
	출연단체		해당 시 필수
	스태프진	스태프진명	해당 시 필수
		역할	해당 시 필수
	언어		해당 시 필수
	상연시간		해당 시 필수
	작품구성		해당 시 필수
	저작권정보		선택
	문예진흥기금지원여부		선택
	참고정보		선택
	공연평		선택

<표9>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예술자료원 메타데이터(구현형)

기본 메타데이터	하위 메타데이터	필수여부
자료유형		필수
매체유형		필수
표제사항	표제명	필수
	부표제명	해당 시 필수
	대등표제	해당 시 필수
저자사항	저 자	해당 시 필수
발행사항	발행지	해당 시 필수
	발행처	해당 시 필수
	발행년	해당 시 필수
청구기호		해당 시 필수
분류기호		선택
표준번호	ISBN	해당 시 필수
	ISSN	해당 시 필수
	기타번호	해당 시 필수
시리즈	시리즈명	해당 시 필수
	시리즈번호	해당 시 필수
언어	자막언어	해당 시 필수
	표지언어	해당 시 필수
형태사항	수량	필수
	크기	필수
	쪽수	필수
재생정보	재생시간	해당 시 필수
	주사선방식	해당 시 필수
	영상색채	해당 시 필수
	화면배율	해당 시 필수
	지역코드	해당 시 필수
	재생속도	해당 시 필수
	음향	해당 시 필수
이용제한 여부		해당 시 필수
저작권정보		선택
주기사항		선택
부록		해당 시 필수
입수정보	입수방법	필수
	가격정보	선택

3.2 공연예술자료 관리기관 메타데이터 요소

지금까지 살펴본 공연예술자료 관리 기관의 메타데이터 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공연예술자료 정리와 기술을 위한 통합 메타데이터 요소를 선별한다. 하지만 공연예술자료 관리 기관들의 메타데이터 요소를 통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표준 메타데이터가 부재중이며, 각 기관들마다 고유한 영역에 맞추어 메타데이터 요소를 사용하고 있기에 이들을 동일한 평면선상에 놓아 비교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차선으로 각 기관들의 전체 메타데이터 요소를 한 곳에 모아 중복된 것은 제외한 후 메타데이터 요소들을 선별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중복 제외 작업은 먼저 각 기관마다 반복되어 출현하는 요소(예를 들어 국악원은 각 영역마다 내용, 비교요소가 출현한다)를 제거하였다. 이로 국립극장은 전체 56개 요소에서 비교요소 중복이 제외되어 54개로, 국악원은 전체 48개 요소에서 일시, 장소, 지역 등 폴더에서 상속되는 요소들이 제외되어 34개로, 예술위는 전체 71개 요소에서 언어, 표제명과 같이 여러 영역에서 동시에 사용되는 요소들이 제외되어 65개가 되었다. 다음으로 이들 세 기관 총 154개 요소들을 한데 묶어 부표제, 부제목 등의 동일 요소를 제거하는 작업을 시행하였다. 이 결과 총 71개의 메타데이터 요소가 선별되었다. <표10>참조. 이렇게 중복요소를 제거한 후, 일차적으로는 추상적인 지적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기술하는 요소와 실현되어 있는 물리적 대상물에 대한 요소로 구분하였고 이차적으로는 식별에 관한 요소와 내용에 관한 요소로 구분하였다. 이는 공연예술이 실질적인 자료로 변환되는 과정의 추상적인 내용과 공연예술자료 그 자체에 대한 기술을 하기 위함이다.

지적 내용에 관한 메타데이터 요소는 제목, 부표제, 이형제목, 관련저작, 초연일, 언어, 작품구성, 등장인물 수 등 39개 요소가 선별되었다. 아울러 물리적 특성에 관한 요소는 등 45개가 요소가 선별되었다.⁸⁾ 하지만 자료가 언제, 누구에 의해 기술되었는지 이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는

8) 총 71개 요소에서 84개로 전체 요소가 증가한 까닭은 번호, 제목, 부표제 등과 같은 지적, 물리적 요소 모두에 들어가는 중복요소 때문이다.

지 등의 기록관리에 대한 사항이 국립국악원의 기록관리정보 요소 단 하나로 나타났다. 이에 자료를 기록으로 온전히 관리하기 위해 좀 더 다양한 기록관리적 요소들이 추가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표10> 기관 개별 메타데이터

기관 개별 메타데이터				
	식별에 관한 요소		내용에 관한 요소	
대상물의 지적 내용에 대한 요소	번호 제목 부표제 대등표제 한글표제 작자 연출자 안무자 번역자 작곡자 스태프진 출연자 수행단체 참여단체 행사명 언어	관련저작 공연일자 수행기간 장소 공연회차 초연일 최초출판일 창작년도 컬렉션 시리즈 유형	공연평 상연시간 공연시작시간 공연종료시간 공연대상층 이용대상층 작품구성 작품해설 등장인물명 등장인물수 주제 주기사항 기록관리정보	
대상물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요소	번호 제목 부표제 대등표제 한글표제 디지탈화 실물구분 본구분 분류 부록 부크기 수량 수축수 언어 장소 시리즈	생산일 입수번호 입수처 소장처 상자번호 저작권자	주사전방식 음향채울 영상색배 화면배율 지역코드 재생시간 재재생시간 수집근거 입수방법 가격정보 자료성 자료상태 유형	재질/훼손/최종등급 이용제한여부 비공개사유 공개범위 사용범위 이용허락일 보호기간 향후보완사항 주기사항 기록관리정보

IV. 공연예술자료 메타데이터 제안

지금껏 공연예술자료에 대해 살펴본 결과 공연예술이 실제 공연으로 그리고 자료로 성사되기까지는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단체들과의 협동 작업이 필요하고, 이로 말미암아 공연예술자료의 실질적인 출처는 배우, 연출가, 극장, 공연기획사 등 자료를 바라보는 관점과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견지되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 연유로 자료를 어느 특정한 하나의 단체나 개인의 관점에서만 기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공연예술자료를 정리하고 기술하기 위한 모델은 다양한 관점에 따라 재구성되며 이를 집합적,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기본적인 요건으로 지녀야 할 것이다. 또한 요소는 수많은 이해당사자와 단체들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공연예술자료는 희곡집과 같은 도서자료, 공연을 홍보하기 위한 팸플릿과 같은 서지자료, 실제 공연 촬영한 공연 녹화 동영상파일과 같은 전자자료, 의상 등의 박물 자료, 이들을 전 과정에서 관리하고 보완하는 행정 자료 등 공연 준비 단계부터 공연 이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유형의 자료가 존재한다. 또한 이들 자료는 별도의 장비들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따라서 복잡한 자료의 유형과 그에 따라 동반되는 장비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모델과 요소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4.1 메타데이터 모델 제안

다양한 관점에 따라 재구성되는 모델을 설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살펴본 FRBR의 제1집단 4개 개체와 2집단 개인과 단체 개체 관계를 응용하여 1집단 5개 개체, 2집단 2개 개체를 가지는 메타데이터 모델을 설계하였다. 1집단의 5개체는 작품, 공연, 개별 공연, 매체, 개별 자료이며, 제2집단의 개체는 개인과 단체이다, 이들 개체들은 그들 각각이 출처로

기능하며 각 개체의 관점에 따라 자유롭게 이합 집산되도록 설계하였다.

4.1.1 제안 모델 개체 정의와 그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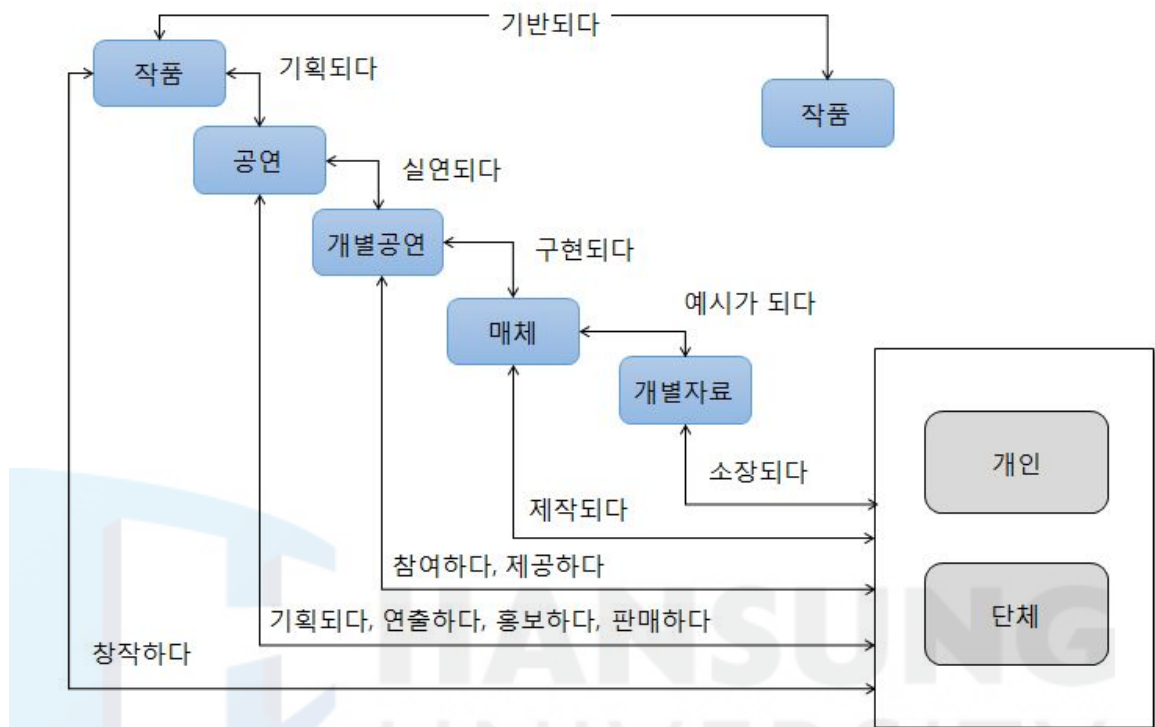
제안하는 모델 1집단 개체들은 FRBR 제1집단 4개 개체인 작품 표현형, 구현형, 개별 자료를 응용하여 제안한다. 먼저 작품 개체는 FRBR작품 개체를 응용한 것으로, 기술해주는 것은 지적, 예술적 독창성을 지닌 ‘작품’이다. 예컨대 ‘햄릿’, ‘리어왕’, ‘맥베스’, 등 지적, 예술적 독창성을 지닌 작품들 하나의 추상적인 내용을 작품 개체에 기술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 작품이 지적, 예술적 노력을 통해 변경이 되면 또 다른 독립적 작품 개체로 기술한다. 예를 들어 ‘별난 가족’을 각색한 ‘점프’의 경우는 별난 가족이 기반 작품이 되고 점프는 파생 작품이 된다.

한편 공연은 기획에 따라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 번 공연된다. 이렇게 동일한 내용으로 실연된 공연은 사실 완전히 다른 공연이다. 더블 캐스팅 등에 따른 출연진 변화, 관객 변화 등 여러 환경적인 변수로 인하여 무대에 올라간 공연 각각마다 서로 다른 공연이 되는 것이다. 공연예술자료의 공연 변화 양상 즉, 맥락 보존을 위해 이러한 각각의 공연들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FRBR의 표현형 개체를 공연 개체와 개별 공연 개체 둘로 나누어 제안한다. 공연 개체는 일정 기간 동안 공연이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지속될 수 있게 기획하는 과정 전체에 대한 사항을 기술하며, 개별 공연 개체는 이러한 계획에 따라 실연되는 ‘공연’ 그 자체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다시 말하여 공연 개체는 공연을 실연하기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인 것이고, 개별 공연 개체는 실연된 공연 그 자체에 관한 사항인 것이다.

매체 개체는 FRBR의 구현형 개체를 응용한 것으로 실제 실연된 공연을 통해 구체화된 매체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예컨대 2012년 1월 20일 7시 공연을 촬영한 사진, 녹화한 녹화 테이프와 같은 매체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것이다.

개별 자료 개체는 FRBR의 개별 자료 개체를 응용한 것으로, 매체 개체와

동일한 특성을 가진 개별 복제물에 대한 사항을 기술한다. 이들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자료의 최소단위로 기능한다. 이러한 개체들은 서로를 연결해주는 관계를 통해 정의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아래 <그림9>를 살펴보자.



<그림9> 제안 개체와 그 관계

그림에서 1집단의 관계는 작품과 작품, 작품과 공연, 공연과 개별 공연, 개별 공연과 매체, 매체와 개별 자료를 연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각각 기반, 기획, 실연, 구현, 사례 관계로 정의된다.

첫 번째 관계인 작품과 작품 관계는 작품이 어느 특정한 작품을 ‘기반’으로 탄생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즉 지적, 예술적 독창성을 지닌 작품을 기반으로 또 다른 지적, 예술적 독창성을 지닌 작품이 나타났음을 뜻한다. 특히 이 관계는 공연예술 행위 과정에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난다. 예컨대 소설 작품을 공연을 실연하기 위한 공연 대본집 작품으로 각색하여 사용하는 경우 소설은 공연 대본집의 기반 작품이 되는 것이다. 이를 반대로 보면 공연 대본집은 소설을 기반으로 한 작품이라는 것이 정의된다.

두 번째 관계는 작품과 공연의 관계이다. 이는 작품이 공연을 통해 ‘기

획' 되었음을 나타낸다. 이는 반대로 공연이 작품의 구체적인 기획과정이라는 것을 정의한다.

세 번째 관계는 공연과 개별 공연의 관계이다. 이 관계는 추상적인 작품과 이를 기획한 공연이 실제 개별 공연으로 '실연' 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반대로 개별 공연은 공연을 실연한 것으로 정의된다.

네 번째 관계는 개별 공연과 매체의 관계이다. 개별 공연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 실연되었지만 만질 수 없는, 단지 그 순간에만 존재하는 공연 그 자체이다. 이 같은 개별 공연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구현' 한 것이 매체가 된다. 반대로 보면 매체는 개별 공연을 특정한 대상으로 구현한 것으로 정의된다.

다섯 번째 단계는 매체와 개별 자료의 관계이다. 이 관계는 매체의 개별적 사례가 개별 자료란 것을 나타낸다. 즉 개별 자료는 매체의 사례로 정의된다.

이렇게 제시된 관계들은 비록 그림에서 단절되어 있지만, 하나의 연속적인 고리로 작용한다. 작품에서 공연으로의 관계는 공연과 개별 공연과의 관계를 통해 연결되고, 이 두 관계는 다시 매체에서 개별 자료의 관계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고리를 형성하는 것이다. 예컨대 개별 공연과 이 개별 공연을 구현한 매체 간의 관계를 설정할 때 매체는 동시에 개별 공연을 통해 실현된 작품과 연결되고, 공연은 그 공연이 기획한 작품과 연결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2집단 개인과 단체는 소장, 제작, 참여, 제공, 연출, 기획, 홍보, 판매, 창작의 아홉 관계로 1집단과 연결된다.

첫째로, 소장관계는 개인이나 단체가 자료를 소장하고, 이를 소장하기까지의 과정에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를 연결한다.

둘째로, 제작관계는 매체를 발행, 배포, 제작하는 과정에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와 연결된다.

셋째로, 참여 관계는 개별 공연에 참여한 연기자, 스태프진과 같은 개인과 단체를 연결한다.

넷째로, 제공 관계는 공연 실연장소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연결한

다.

다섯째로, 연출 관계는 작품을 가지고 어떻게 실연하여 보여줄 것인가의 연출과 관련된 개인과 단체를 연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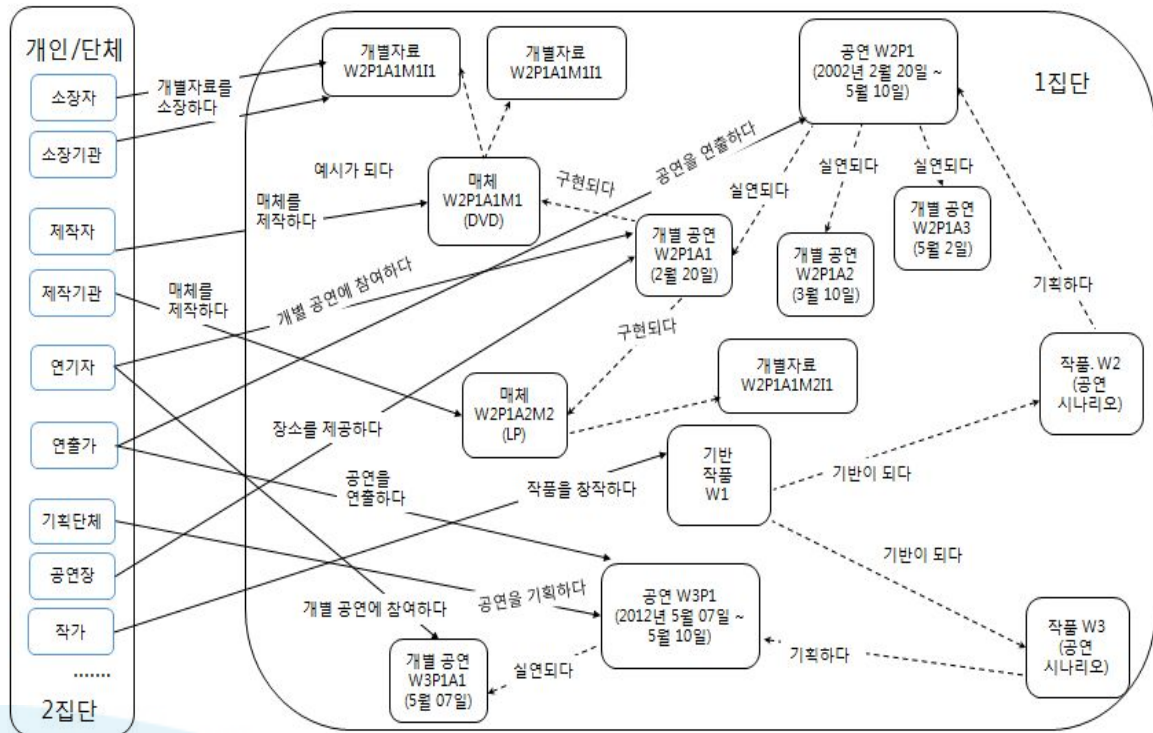
여섯째로, 기획 관계는 작품을 공연으로 기획하는 과정과 관련된 개인과 단체를 연결한다.

일곱째로, 홍보 관계는 공연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개인과 단체를 연결한다.

여덟째로, 판매 관계는 기획하고 홍보한 공연을 대중에게 공개하여 재화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관여한 개인과 단체를 연결한다.

마지막으로 창작은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지적, 예술적인 작품으로 창작되는 과정에 관련되는 개인과 단체를 연결한다.

이러한 관계는 개체와 연결됨으로써 개체에 관련된 개인과 단체를 식별하게 된다. 2012.10.10일 공연을 촬영하여 DVD로 구현한 개별 자료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개별 자료를 개인이 가지고 있다가 기관에 기증하면 이 개별 자료를 기증한 개인은 기증자로, 기증 받은 기관은 자료를 소장한 기관 개체로 식별된다. 이렇게 식별된 개체는 출처로 기능하여 이들 각각의 관점에서 자료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이제껏 정의한 개체들과 이들 개체간의 관계를 구현하면 다음 <그림10>과 같다.



<그림10> 제안 메타데이터 모델

먼저 제 1집단 작품, 공연, 개별공연, 매체, 개별 자료의 관계를 살펴보자. 작품은 work의 W, 공연은 performance의 P, 개별 공연은 작품과 공연의 실제적인 표현이라는 점에서 실제(authenticity)의 A로 약어 표기하였다. 또한 매체는 개별 공연이 구현된 것이므로 구현형(manifestation)의 M, 개별 자료는 item의 I로 약어 표기한다. 또한 파선으로 구성된 화살표는 개체와 개체를 관계로 표현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1집단 관계는 특정한 기반 작품(W1)을 통해 작품(W2), 작품(W3)이 파생되었고 공연(W2P1)은 작품(W2)을 통해, 공연(W3P1)은 작품(W3)을 통해 기획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연(W2P1)의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공연들(W2P1A1/W2P1A2/W2P1A3)이 실연되었다, 이 각각의 개별 공연을 기록 작업을 통해 남긴 것이 매체와 개별 자료이다. 그림에서는 개별 공연(W2P1A1)만 기록 작업이 수반되어 매체 두 종류 [(W2P1A1M1)/(W2P1A1M2)]가 구현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매체(W2P1A1M1)는 전체 2개의 개별 자료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매체(W2P1A1M2)는 개별 자료가 단 하나로 메뉴스크립트인 것을 알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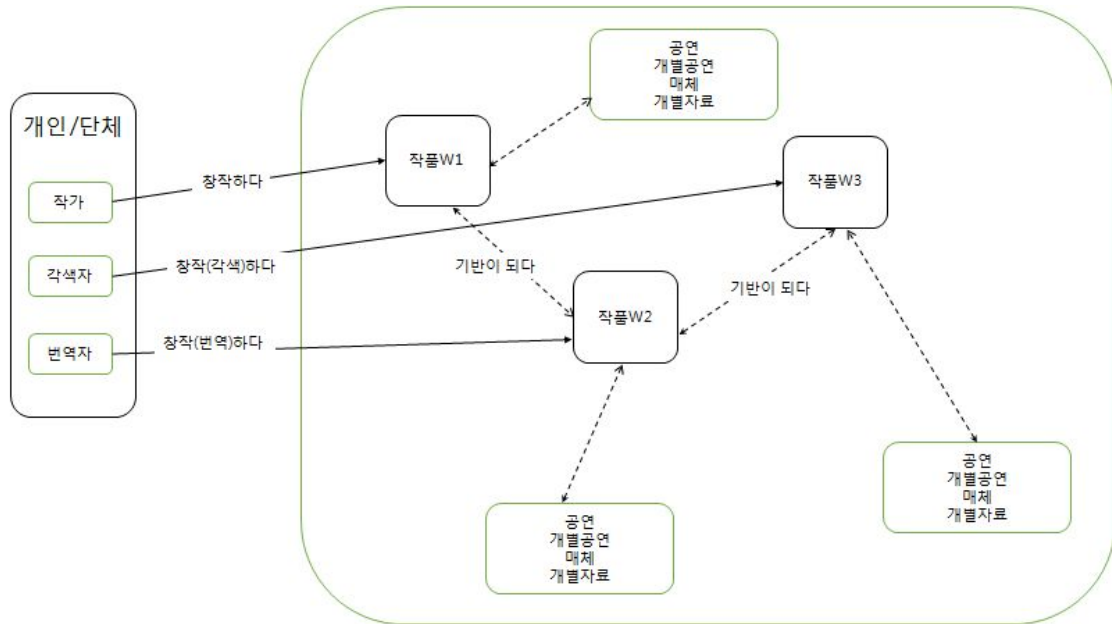
다. 한편 공연(W3P1)은 개별 공연(W3P1A1)이 실연된 것을 볼 수 있지만, 매체나 개별자료 관계가 없다. 이는 공연이 기획되어 실연되었지만 일련의 기록 작업이 수반되지 않아 그대로 소멸된 경우를 뜻한다.⁹⁾ 그렇지만 공연의 기록과정이 수반되지 않아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추상적인 개체들인 작품, 공연, 개별 공연은 기록되어야 한다. 어느 특정한 작품을 가지고 공연이 나타났고, 이는 언제 실연되었는지, 누가 참여하였는지 등의 정보는, 비록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가 없기에 증거적 가치는 없을지언정 공연예술사의 흐름이나 동향 등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엔 2집단과 1집단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화살표는 2집단의 개인(이해당사자)와 단체가 1집단의 개체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나타낸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자료를 여러 출처 관점에서 재구성할 수 있다. 가령 원작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원작자가 생산한 작품(W1)이 작품(W2)과 작품(W3)로 재탄생한 것을 알 수 있고, 이들 작품이 어떠한 공연들을 탄생시켰는지 등의 정보를 파악 할 수 있다. 또한 공연이 실연된 장소인 공연장의 관점에서는 어떠한 공연들이 지금껏 실연되었는지, 그 공연은 어떤 작품을 기반으로 하였는지, 어떤 자료를 남겼는지 등의 정보를 파악 할 수 있다.

4.1.2 제안 모델 사례

이 모델은 모든 개체가 출처로서 기능하여 다양한 관점을 표현 하도록 설계되었다. 아래 그림들은 위 그림에서 간략히 표현된 2집단과 1집단의 관계와 각각의 개체들을 좀 더 상세히 표현하여 이들이 출처로 기능하는 것을 보여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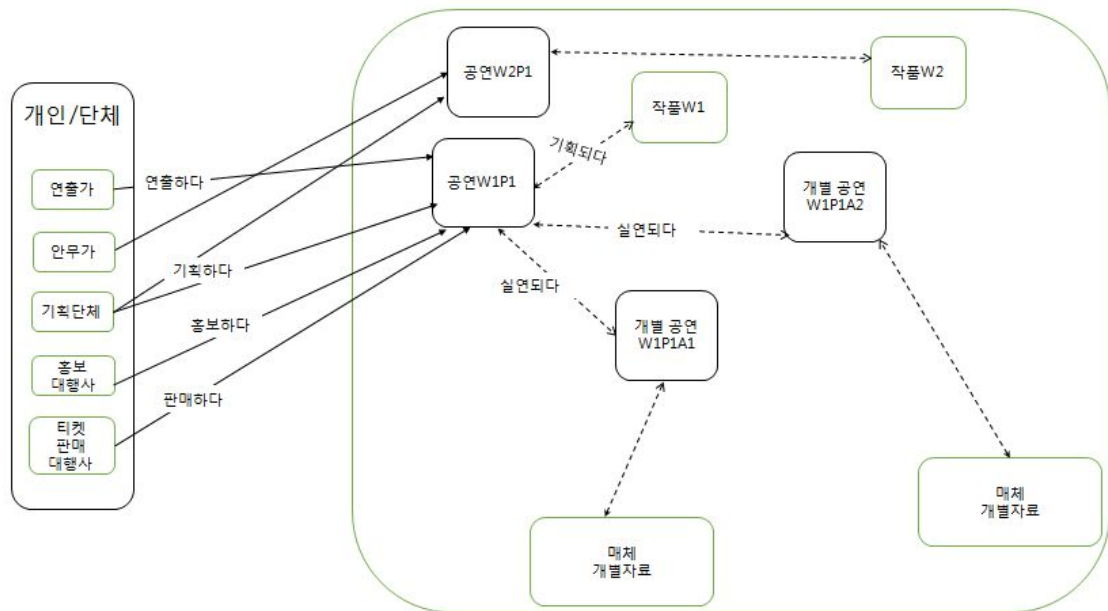
9) 그러나 실연된 공연을 기록 작업을 통해 자료로 남겨도 이는 실제 공연은 아니다. 공연은 개별 공연 단계에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순간에 표현되고 소멸된다. 그 어떠한 매체도 연기자, 장소, 관객으로 표현되는 공연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는 없기에 공연을 기록한 무언가는 공연 그 자체가 아니라 공연의 흔적일 뿐이다.



<그림11> 작품에서 나타나는 관점

작품에서는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 참여한 이해당사자들과 단체들의 관점과 작품 그 자체의 관점이 있다. 먼저 작가의 관점에서는 작품(W1)을 창작하고 이를 번역자가 번역하여 새롭게 탄생시킨 작품(W2)을 각색자가 본국 실정에 맞게 하여 (W3)를 만든 것을 볼 수 있다. 각색자 관점에서는 작품(W3)을 각색할 때 작품(W2)을 기반으로 하였고 이 작품(W2)은 (W1)의 번역 작품이라는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듯 작가, 번역자, 각색자 등 2집단 개체들은 1집단의 개체들과 연결되어 특정한 맥락을 발생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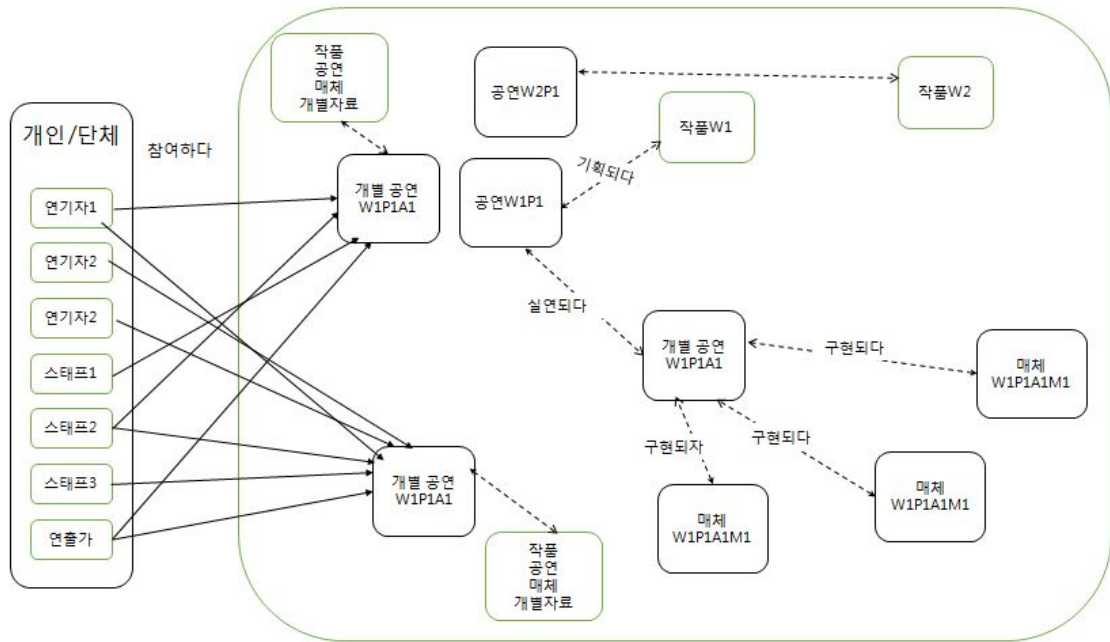
한편 작품을 출처로 놓고 본다면 작품(W1)은 지적, 예술적 변경과정을 거쳐 번역된 작품(W2)이 있고 이 작품(W2)은 각색되어 작품(W3)이 된다. 이 같이 작품을 출처로 놓고 본다면 한 작품의 계보를 쉬이 파악할 있다. 가령 작품이 ‘햄릿’이라면 지금껏 햄릿이 어떤 언어로 번역되었는지, 어떤 작품의 모티브가 되었는지, 그 작품은 어떤 기획과정을 거쳐 공연이 되었는지, 자료는 무엇인지 등등 상세한 작품의 계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림12> 공연에서 나타나는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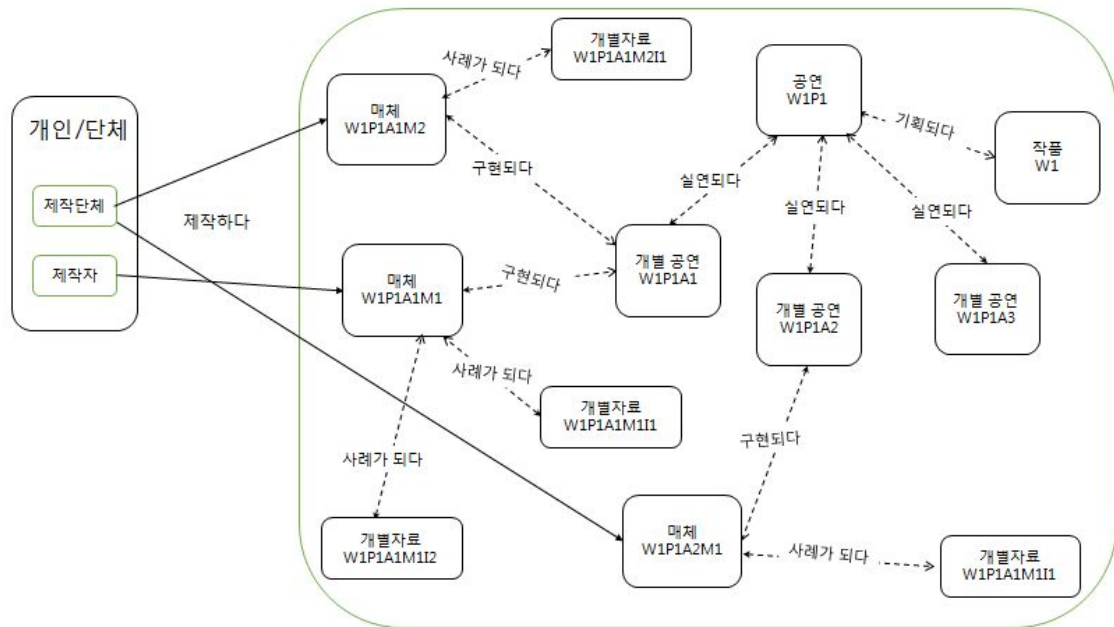
공연에서는 공연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참여한 이해당사자들과 단체들의 관점과 공연 그 자체의 관점이 있다. 이 중 공연(P1)의 관점에서는 공연(P1)을 탄생시키기 위해 연출가와 기획 단체들이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렇게 기획된 공연은 각각의 개별 공연들로 실연되고 이 실연된 공연에서 파생된 자료들이 매체와 개별 자료로 이어지게 된다. 한편 연출가 등 각각의 이해당사자와 단체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행한 공연과 이 공연 어떠한 작품을 바탕으로 기획되었는지 등의 정보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기획에 관련된 사항은 기획 단체 외에도 티켓배부 업체, 홍보 대행사 등 수많은 단체들이 기획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외, 공연(P2)는 기획 단체와는 연결되어 있지만, 다른 개체들과는 연결되지 않은 것이 보인다. 이는 기획이 계획되었지만 아직 연출, 홍보 등의 세세한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이 같이 아직 완결되지 않은 정보라도 우리는 기록할 필요가 있다. 현재 무슨 작품이 공연으로 기획되고 있다는 정보만으로도 공연예술계의 동향을 짚을 수 있는 귀중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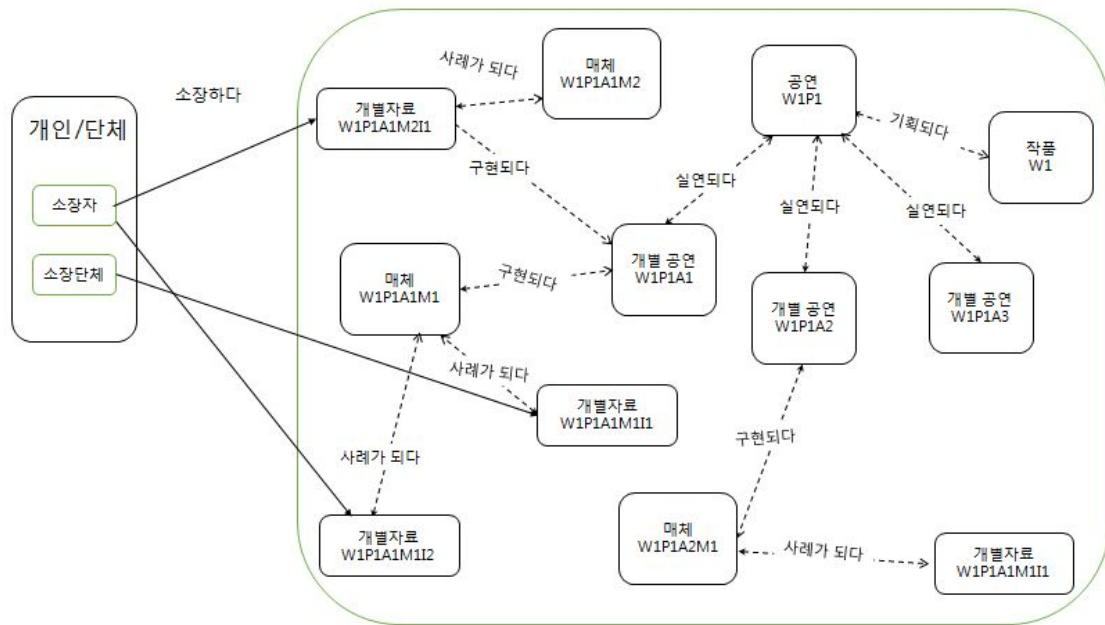
<그림13> 개별 공연에서 나타나는 관점

나타는 개별 공연의 여러 관점 중 먼저 개별 공연 자체의 관점을 보면 개별공연(W1P1A1)을 실연하기 위해 미리 기획한 공연에 관한 정보가 무엇인지, 이는 어떤 작품을 기획한 것인지, 어떠한 매체들이 파생되었는지, 이 매체들은 어떠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를 파악가능하다. 또한 연기자 관점에서는 본인이 이제껏 참여한 공연은 무엇인지. 참여한 공연은 어떠한 공연 인지 등의 정보를 취할 수 있다. 살펴본 작품, 공연, 개별 공연과 관계된 관점 외에도 매체와 개별 자료에 관계된 관점 또한 존재한다.



<그림14> 매체에서 나타나는 관점

매체에서 나타나는 관점 중 먼저 제작 단체의 관점에서 보면 제작 단체는 지금까지 제작한 매체가 무엇인지 파악가능하고, 이 매체는 어떤 공연을 구현화한 것인지, 이 공연은 어떤 작품을 가지고 기획한 것인지 등의 정보를 취할 수 있다. 한편 매체 관점에서는 사례가 되는 개별 자료는 몇 개가 있는지, 이는 언제 어디서 실연된 공연에서 파생된 자료인지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림15> 개별 자료에서 나타나는 관점

개별 자료에서 나타나는 관점은 개별 자료를 실제 소장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의 관점과 개별 자료 자체의 관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소장자 관점에서는 어떠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지, 이 자료는 어떠한 공연에서 파생되었는지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정보는 자료를 단순히 관리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4.2 공연예술자료 메타데이터 요소

앞 장에서 선별한 공연예술자료 관리기관 전체 메타데이터를 제안한 모델의 각 개체에 맞게 매핑 하여 공연예술자료를 정리하고 기술하는 메타데이터 요소로 도출한다. 매핑 작업은 추상적인 작품, 공연, 개별공연에는 지적 요소들을 매핑하고 매체와 개별자료는 물리적인 요소들을 매핑하였다. 그러나 그 전에 앞서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던 기록관리적 요소의 추가가 필요하다. 이에 국악원의 기록관리정보 요소를 전 세계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록관리 표준인 ISAD(G)요소들 중 재생산(복제)조건, 물리적/전자적 위치, 원본/사본의 존재와 위치, 기술일자, 아키비스트 주기로 세분화하여 <표11>과 같이 매핑 하였다.

<표11> 공연예술자료 관리기관 메타데이터 매핑 - 계속

기관 메타데이터 (지적)	작품	공연	개별 공연	기관 메타데이터 (물리적)	매체	개별 자료
번호	0	0	0	번호	0	0
제목	0	0		제목	0	
부표제	0	0		부표제	0	
대등표제	0	0		대등표제	0	
한글표제	0	0		한글표제	0	
작자	0			디지털화여부	0	
연출자		0		실물구분	0	
안무자		0		원본구분		0
번역자	0			분류	0	
작곡자		0		크기	0	
스태프진			0	수량	0	
출연자			0	쪽수	0	
수행단체		0		시리즈	0	
참여단체		0		생산일		0
행사명		0		장소	0	
관련저작	0			입수번호		0
공연일자			0	입수처		0
수행기간		0		소장처		0
장소		0		상자번호		0
공연회차			0	저작권자		0
초연일	0			주사선방식	0	

<표11> 공연예술자료 관리기관 메타데이터 매핑 - 계속

기관 메타데이터(지적)	작품	공연	개별 공연	기관 메타데이터 (물리적)	매체	개별 자료
최초출판일	0			음향	0	
창작년도	0			영상색채	0	
컬렉션	0			화면배율	0	
시리즈	0			지역코드	0	
공연평			0	재생속도	0	
상연시간		0		재생시간	0	
공연시작시간		0		수집근거		0
공연종료시간		0		입수방법		0
이용대상층		0		언어	0	
언어	0	0		가격정보		0
작품구성	0			자료성격	0	
작품해설	0			유형	0	
등장인물명	0			부록	0	
등장인물수	0			자료상태		0
주제	0			재질/훼손/최종등급		0
주기사항	0	0	0	이용제한 여부		0
				비공개사유		0
				공개범위		0
				사용범위		0
				이용허락일		0
				보호기간		0
				향후보완사항		0
				주기사항	0	0

<표12> ISAD(G)요소 매핑

ISAD(G) 요소	작품	공연	개별 공연	매체	개별 자료
물리적 위치					0
전자적 위치					0
원본의 존재와 위치					0
사본의 존재와 위치					0
재생산(복제)조건				0	
기술일자	0	0	0	0	0
아키비스트 주기	0	0	0	0	0

<표13> 개체 별 메타데이터

작품	공연	개별 공연	매체	개별 자료
번호	번호	번호	번호	번호
제목	제목	스태프진	제목	원본구분
부표제	부표제	출연자	부표제	생산일
대등표제	대등표제	공연일자	대등표제	입수번호
한글표제	한글표제	공연회차	한글표제	입수처
작자	연출자	공연평	디지털화여부	소장처
번역자	안무자	주기사항	실물구분	상자번호
관련저작	작곡자	기술일자	분류	저작권자
초연일	수행단체	아키비스트주기	크기	수집근거
최초출판일	참여단체		수량	입수방법
창작년도	행사명		쪽수	가격정보
컬렉션	수행기간		시리즈	자료상태
시리즈	장소		장소	재질/훼손/최종 등급
언어	상연시간		주사선방식	이용제한 여부
작품구성	공연시작시간		음향	비공개사유
작품해설	공연종료시간		영상색채	공개범위
등장인물명	이용대상층		화면배율	사용범위
등장인물수	언어		지역코드	이용허락일
주제	주기사항		재생속도	보호기간
주기사항	기술일자		재생시간	향후보완사항
기술일자	아키비스트주기		언어	주기사항
아키비스트주기			자료성격	물리적 위치
			유형	전자적 위치
			부록	원본의 존재와 위치
			주기사항	사본의 존재와 위치
			재생산(복제)조 건	기술일자
			기술일자	아키비스트주기
			아키비스트주기	

매핑을 통해 일차적으로 도출된 메타데이터 요소들은 각각의 기관의 특성과 사명에 맞게 메타데이터 요소가 사용되고 있기에, 범용적인 현실 적용 가능성과 타당성 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해당 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전문가 3명의 자문을 받아, 용어 교정 등 관련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작품에 관한 메타데이터 요소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① 번호는 좀 더 명확히 해당 개체를 식별 할 수 있도록 식별코드로 용어를 수정하였다. 이는 작품 개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개체에서 적용된다.
- ② 표제부(제목, 부표제, 대등표제, 한글제목)는 공연제목, 공연부제목, 공연이형표제로 수정되었으며, 한글제목은 이형표제가 포괄할 수 있다 판단하여 삭제하였다. 이렇게 수정된 표제부는 공연과 개별자료 개체를 제외한 모든 개체에서 동일한 형식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매체에서는 매체 제목으로 사용된다.
- ③ 공연 생산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은 기존 요소 외에 각색자 요소를 추가하며, 작자는 작가로 수정하였다.
- ④ 주제는 범위가 넓으며 입력해야 할 정의도 모호하다. 따라서 공연예술의 유형을 기술하기 위한 ‘유형’ 요소로 그 범위를 축소하고 이 유형을 공연유형으로 바꾸어 공연개체에 사용케 하였다.
- ⑤ 컬렉션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 자체가 한 작품에서 파생된 공연과 그 자료들을 모두 포괄하므로 삭제하였다.
- ⑥ 작품 구성, 작품 해설은 작품 줄거리로 통합하였다.
- ⑦ 관련 작품 외에 기반 작품 요소를 추가하였다. 기반 작품 요소는 FRBR에 슈퍼저작을 응용한 것으로, 한 작품을 상위에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 ⑧ 언어는 하나의 작품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일어난 공연 전체에서. 매체에서 모두 다른 언어를 쓸 수도 있다. 따라서 작품 개체에서는 작품 언어로, 공연기획에서는 공연 언어로 매체에서는 매체 언어로 명확히 제시한다.

둘째, 공연 기획에 사용되는 메타데이터 요소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① 수행기간과 공연일자를 공연일정으로 통합 수정하였다. 이로써 한 작품에서 파생된 하나의 전체 공연기획일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② 공연생산에 관련된 출연자 요소를 연기자로, 수행단체는 기획 단체로 수정하였다. 아울러 홍보 단체, 제작 단체 요소를 추가하였다.

③ 장소는 공연이 실제 상연된 장소, 매체가 제작된 장소, 자료가 보존되는 장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공연 기획 개체에서는 공연 장소로, 매체 개체에서는 제작지로, 개별 자료에서는 위치(원본/사본의 존재와 위치)로 사용한다.

④ 시리즈와 행사명은 관련 행사로 통합하였다.

⑤ 상연시간, 공연시작시간, 공연종료시간은 상연시간으로 합치한다.

셋째, 실제 상연된 공연에 사용할 메타데이터 요소는 번호를 식별코드로, 공연회차를 공연일정으로, 공연평을 그대로 사용한다. 이외의 요소들은 연구자가 임의로 제안하였다. 이는 기관들이 공연에 기획에 관련된 사항과 여기에서 파생되는 개별적인 공연을 따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은 연유로, 개별 공연에 관한 메타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용되는 요소는 공연기획과 연결해주는 관련 기획정보, 실제 공연이 일어난 일시를 알려주는 공연 일시, 연기자, 이 공연만이 가지는 특별한 정보를 알려주는 공연 특이사항 등이 있다.

넷째, 매체 개체에서 사용하는 메타데이터 요소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① 디지털화 여부와 실물구분 그리고 분류 및 유형은 매체 유형에서 정해지므로 삭제하였다.

② 매체 식별과 생산, 즉 출처와 관련된 제작 단체와 제작자, 제작지를 추가하였다.

③ 주사전 방식, 지역코드 등 특정 매체에서만 사용가능한 요소는 추리고 통합적으로 사용 될 수 있는 재생시간과 같은 요소를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개별 자료에서 사용하는 메타데이터 요소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① 원본구분과 소장처는 원본/사본 존재와 위치로 수정되었다.

② 입수번호는 관리 이력으로 수정하여 좀 더 자세히 자료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집근거도 관리 이력에서 표현된다.

③ 입수처는 인수처, 인계자, 인수자로 세분되어 자세히 표현한다.

- ④ 자료 상태, 등급, 가격정보는 평가, 폐기, 처리 일정 정보에서 다룬다.
- ⑤ 이용제한 여부, 이용허락일, 사용범위, 보호기간은 자료 이용조건에서 다룬다,

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메타데이터 요소를 <표14>와 같이 제안한다.

제안된 요소들은 각 개체들의 속성을 설명하는 도구이다. 이 요소들은 필수, 해당 시 필수, 선택으로 구분한다. 필수요소는 개체를 표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요소이며 해당 시 필수는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할 시 필히 기술한다. 예를 들어 작품 개체에서 필수요소인 작가는 해당 작품의 최초 원작자(들)를 기재하며 해당 시 필수인 관련 작품은 관련된 작품이 있을 경우에만 필수요소가 된다. 선택요소는 필수적으로 입력할 필요는 없으나 해당 자료와 관련 자료에 대해 부가적 설명을 해줌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요소이다.



<표14> 공연예술자료 정리와 기술을 위한 메타데이터 최종 제안

작품 메타데이터	공연기획 메타데이터	공연 메타데이터	매체 메타데이터	개별 자료 메타데이터
식별 코드	식별 코드	식별 코드	식별 코드	식별 코드
작품 제목	공연 제목	연기자	매체 제목	입수일
작품 부제	공연 부제	스태프	매체 부제	관리이력
작품 이형제목	공연 이형제목	공연일시	매체 이형제목	소장이력
창작연도	공연일정	관련 공연 정보	매체 시리즈	입수방법
초연일	공연장소	공연 특이사항	제작일	인수처
작가	연출자	공연평	매체 유형	인계자
각색자	기획 단체	주기사항	전자 자료 유형	인수자
번역자	홍보 단체	기술일자	수량	평가, 폐기, 처리 일정 정보
등장인물수	판매 단체	아키비스트주기	크기	물리적 위치
등장인물명	관련 행사		쪽수	전자적 위치
작품 언어	공연언어		부록	자료이용 조건
작품 줄거리	상연시간		매체 제작단체	원본의 존재와 위치
기반 작품	공연이용연령		매체 제작자	사본의 존재와 위치
관련 작품	주기사항		매체 제작지	주기사항
주기사항	기술 일자		매체 언어	기술일자
기술일자	아키비스트주기		자막사항	아키비스트주기
아키비스트주기			실행도구	
			재생시간	
			재생속도	
			주기사항	
			재생산(복제) 조건	
			기술 일자	
			아키비스트주기	

4.2.1 작품 메타데이터 요소

추상적인 작품 내용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들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식별 코드, 제목, 부제, 이형제목, 창작연도, 초연일, 작가, 유형, 등장인물수, 등장인물명, 작품줄거리, 기반 작품, 관련 작품 등 18개의 요소를 제안하였으며 이 중에 제목, 초연일, 작가를 필수요소로 지정하였다. 또한 식별코드, 기술 일자, 아키비스트 주기는 기록관리적 요소로써 전 개체에 걸쳐 필수요소로 기술된다.

<표15> 작품 메타데이터 요소

영역	요소	구분	설명
식별영역	식별 코드	필수	해당 개체를 식별하기 위한 코드
	작품 제목	필수	대표적인 제목
	작품 부제	해당 시 필수	부제
	작품 이형제목	해당 시 필수	다른 언어로 된 제목
	창작연도	해당 시 필수	창작된 연도
	초연일	해당 시 필수	처음 실연한 날짜
내용영역	작가	필수	작품의 작가
	각색자	해당 시 필수	특정한 작품을 각색한 사람
	번역자	해당 시 필수	특정한 작품을 번역한 사람
	등장인물수	해당 시 필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수
	등장인물명	해당 시 필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명
	작품 언어	필수	작품에 쓰인 언어
	작품 줄거리	선택	작품의 줄거리
	기반 작품	해당 시 필수	작품 탄생에 기반이 된 작품
	관련 작품	해당 시 필수	기술하는 작품과 관련 있는 작품
	주기사항	선택	기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중요 정보이나 다른 요소에 기술하기 어려운 정보
기록관리영역	기술일자	필수	해당 정보를 기술한 날짜
	아키비스트 주기	필수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자의 정보

1) 식별 코드¹⁰⁾

식별코드는 해당 작품을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해 부여되는 코드번호이며 국가코드/기관코드/해당개체코드/등록번호코드로 이루어진다. 코드번호는 영문과 아라비아 숫자로 구성한다. 더불어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따라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한다. 이들 식별코드는 전 개체에 걸쳐 작성된다. 즉 작품 식별코드, 공연 식별코드, 개별 공연 식별코드, 개별 자료 식별코드, 개인, 단체식별코드로 구성된다. 한편 국가 코드는 ISO 3166에서 제시한 영문 2자리의 'KR'로 표시한다.

예시) KR(국가코드)/NT(기관코드)/W(해당개체코드)/50652(식별코드)

2) 제목

해당 작품의 가장 대표적인 제목을 기술한다.

예시) 점프¹¹⁾

3) 부제

부제는 가장 대표적인 제목 외에 부가적으로 붙는 제목을 기술한다.

예시) 마셜아츠 퍼포먼스

10) 식별코드, 표제부(제목, 부제, 이형제목), 주기사항, 기술 일자, 아키비스트 주기는 전 개체에 걸쳐 동일한 방식으로 기술되기에 한 번만 소개한다.

11) 여기서 예시로 제안하는 것은 공연 점프를 대상으로 하였다.

4) 이형제목

이형제목은 대표적으로 선택된 제목의 언어와 다른 형태의 언어가 있을 경우 기술한다. 더불어 자료의 별칭이 존재한다면 이 요소 란에 기술한다.

예시) Comic Marital Arts Performance JUMP!

5) 창작연도

해당 작품이 창작된 연도를 기술한다. 만약 일시까지 정확히 알 수 있다면 모두 기술한다.

예시) 2003년

6) 초연일

해당 작품이 창작되어 처음으로 공연한 날짜를 기술한다. 최소 연도까지는 기술하라.

예시) 2002년 12월 24일

7) 작가

해당 작품의 작가를 기술한다.

예시) 최철기

8) 각색자

해당 작품의 각색자를 기술한다.

예시) 홍길동

9) 번역자

해당 작품의 번역자를 기술한다.

예시) 김철수

10) 등장인물 수

해당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수를 기술한다. 이때 10명까지는 세어주되 그 이상일 경우는 '10명 이상'으로 한다.

예시) 9명

11) 등장 인물명

해당 작품에 등장한 인물들의 명칭을 기술한다. 이때 가능한 원작에서 사용되었던 언어로 기술한다.

예시)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삼촌, 딸, 사위, 도둑, 노인

12) 작품 줄거리

작품의 간략한 줄거리를 기술한다. 줄거리를 다른 정보원에서 얻을 수 있다면 그 정보원에 대한 링크를 기술하라.

예시)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어머니, 삼촌, 딸, 안경에 비밀을 가진 손님. 그리고 ...

13) 기반 작품

연극작품의 경우 해당 작품 탄생의 기반이 된 작품을 기술한다. 무용의 경우는 해당 작품 탄생의 기반이 된 작품과 어떠한 음악을 기반으로 안무가 짜였는지 기술한다.

예시) 별난 가족

14) 관련 작품

해당 작품과 관련되어있거나 파생된 모든 작품들을 기술하여 준다. 이때 기술한 작품명 뒤에 괄호로 관련 사유를 간단하게 기술한다.

예시) VR 브레이크 아웃(동일한 극단(예감)에서 나온 작품임)

15) 작품언어

해당 작품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기술한다.

예시) 한국어

16) 주기사항

주기 사항은 다른 요소에서 수용하기 어렵지만 중요한 정보를 기술한다. 즉 어떤 메타데이터 요소로도 기술하기 어려운, 특이하거나 다른 주요 정보를 기술하게 된다.

예시) 이 공연은 처음으로 해외에 진출하여 공연한 작품임

17) 기술 일자

해당 자료를 기술한 일시/해당 자료를 수정한 일시를 기술한다.

예시) 2008년 10월 5일 작성/ 2014년 7월 20일 작품 줄거리 수정

18) 아키비스트 주기

정보를 누가, 어떻게, 어떠한 사유로 기술하였는지에 대한 요소이다. 더불어 기술을 하는데 참고한 자료나 획득 방법 등도 기술한다.

예시) 담당자 홍길동. 접근자 김철수: 작품 줄거리 오기로 인해 수정

4.2.2 공연 메타데이터 요소

작품 개체에서의 추상적인 내용이 공연이라는 구체적인 과정으로 기획되는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기술한다. 이에 공연에 참여하는 연출자, 배우, 스태프진, 공연의 장소와 기간 등 17개의 요소를 제안하였으며 이중에 제목, 공연일정, 공연장소, 공연단체를 필수요소로 지정하였다.

<표16> 공연 메타데이터 요소

영역	요소	구분	내용
식별영역	식별 코드	필수	공연 개체를 식별하기 위한 코드
	공연 제목	필수	공연의 제목
	공연 부제	해당 시 필수	공연의 부제
	공연 이형제목	해당 시 필수	대표적인 제목과 다른 언어로 쓰여진 제목
	공연일정	필수	해당 공연의 전체 일정
	공연장소	필수	해당 공연이 실연된 장소
	연출자	필수	해당 공연을 연출한 자
	기획 단체	필수	해당 공연을 기획한 단체
	홍보 단체	해당 시 필수	해당 공연을 홍보한 단체
	판매 단체	해당 시 필수	해당 공연을 재화로 변경하는데 관련 단체
	관련 행사	해당 시 필수	해당 공연과 관련 있는 행사
내용영역	공연언어	필수	공연에서 사용한 언어
	상연시간	필수	공연의 전체 상연시간
	공연이용연령	선택	공연을 관람할 때의 연령 제안에 관련 요소
	주기사항	선택	기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중요 정보이나 다른 요소에 기술하기 어려운 정보
기록관리 영역	기술 일자	필수	해당 정보를 기술한 날짜
	아키비스트 주기	필수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자의 정보

1) 공연일정

해당 공연이 공연된 전체 날짜를 기술한다. 공연 예술은 보통 레퍼토리를 정하여 그 기간 동안 동일 작품에서 나온 공연을 여러 번 공연하게 된다. 이 요소는 이 특정 기간을 기술하기 위한 요소이다.

예시) 2002년 2월 20일 ~ 2002년 5월 21일

2) 공연장소

공연 장소는 공연이 레퍼토리에 따라 진행 시 장소가 변경되거나 처음부터 여러 군데의 장소를 섭외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를 포괄하기 위하여 공연일정에서 공연한 장소를 모두 기술한다.

예시)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3) 연출자

해당 공연을 연출한 자를 기술한다.

예시) 이준상

4) 기획 단체

해당 공연을 기획한 단체를 기술한다.

예시) (주) 예감

5) 홍보 단체

해당 공연을 홍보한 단체를 기술한다.

예시) 티켓링크

6) 판매 단체

해당 공연의 판매, 예를 들어 티켓을 담당하는 단체를 기술한다.

예시) 이너파크

7) 관련 행사

해당 공연과 관련된 행사명을 기술한다.

예시) 23회 서울 연극제

8) 공연언어

공연에서 실제 사용하는 언어를 기술하여 준다. 만약 여러 언어가 사용되었다면 가장 주된 언어 뒤에 사용된 언어를 기술한다.

예시) 한국어(영어, 중국어)

9) 상연시간

공연의 상연시간을 분 단위로 기술한다.

예시) 90분

10) 공연이용연령

공연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층을 기술한다. 더불어 공연의 주 타깃을 알 수 있을 경우에는 연령층 뒤에 괄호()로 병기하여 준다.

예시) 전체 이용가(아동) / 12세 이용가 / 15세 이용가 / 18세 이용가



4.2.3 개별 공연 메타데이터 요소

공연 개체에서 기술되는 정보는 공연 기획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실제 공연과 상이한 경우가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더블 캐스팅이 이루어진 공연에서 실제 참여 배우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따라서 공연 개체 즉 공연 기획을 통해 이루어지는 특정한 실제 공연에 관한 사항을 개별 공연 개체에서 기술하게 된다. 이 개별 공연은 앞선 공연과정에서 정한 기획에 관한 요소(제목, 연출가, 기획진, 언어, 사용시간 등)은 변하지 않기에 따로 기술하지 않으며, 실연된 공연만이 지니는 사항을 기술하게 된다. 제안하는 메타데이터 요소는 관련 공연정보, 공연일시, 연기자, 참여자, 공연 특이사항 등 총 11개이다. 개별 공연 개체의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공연 기획 개체와 연결하기 위한 관련 공연정보와 개별 공연 개체를 식별토록 해주는 공연일시는 필수요소로 지정하였다.

<표17> 개별 공연 메타데이터 요소

영역	요소	구분	내용
식별 영역	식별 코드	필수	개별 공연 개체를 식별하는 코드
	연기자	필수	개별 공연을 실연하기 위해 참여한 연기자
	스태프	해당 시 필수	개별 공연을 실연하기 위해 참여한 스태프
	연출자	해당 시 필수	개별 공연을 연출한 연출자 단 이 요소는 전체 기획 과정에서 계획된 연출과 다르게 연출되었을 때 이를 연출한 자를 기술한다.
	공연일시	필수	개별 공연이 실연된 일시
	관련 공연 정보	필수	개별 공연을 기획한 정보로, 공연 개체를 뜻함
	공연 특이사항	해당 시 필수	해당 개별 공연만의 특별한 정보
내용영역	공연평	선택	해당 공연의 평
	주기사항	선택	기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중요 정보이나 다른 요소에 기술하기 어려운 정보
기록관리 영역	기술일자	필수	해당 정보를 기술한 날짜
	아키비스트주기	필수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자의 정보

1) 연기자

해당 개별 공연에 참여한 연기자들 명과 그 역할을 기술한다.

예시) 정태민(배우, 할아버지), 진영섭(배우, 아버지), 김성희(배우, 어머니), 임한창(배우, 삼촌)

2) 스태프진

해당 개별 공연에 참여한 스태프진 명과 그 역할을 기술한다.

예시) 천원욱(무대), 이인영(조명)

3) 공연일시

해당 개별 공연의 일시를 입력한다. 즉 전체 공연일정에서 해당 공연이 공연된 일시를 기술하는 것이다.

예시) 2007년 1월 20일 7시 공연

4) 관련 공연정보

이 개별 공연의 일반적인 정보를 설명하는 공연의 고유 식별 코드를 기술한다. 이를 통해 공연과 그 공연에서 파생된 개별 공연들을 묶을 수 있다.

예시) KR(국가코드)/NT(기관코드)/P50652(공연 개체 코드) = 이를 입력한다.

5) 공연 특이사항

해당 개별 공연만의 특별한 이벤트를 기술한다. 예를 들어 더블 캐스팅으로 일어나는 출연진들의 변화, 특별 초청자 등이 있을 수 있다.

예시) 000배우 특별 초대, 10000번째 관람자 탄생

6) 공연평

실연된 공연의 평을 기술한다.

예시) 2002년 10월 2일 2시 공연은 ...



4.2.4 매체 메타데이터 요소

이 개체의 메타데이터 요소는 실제 개별 공연에서 파생된 자료를 기술하기 위해 사용된다. 수량, 크기, 쪽수 등 물리적 자료에 관한 요소나, 추상적인 전자 자료에 관한 요소 등 총 27개를 제안하였다. 이 중 제목, 제작일, 수량, 크기 매체 종별을 필수요소로 지정하였다.

<표18> 매체 메타데이터 요소

영역	요소	구분	내용
식별 영역	식별 코드	필수	매체 개체를 식별하는 코드
	매체 제목	필수	매체의 제목
	매체 부제	해당 시 필수	매체 부제
	매체 이형제목	해당 시 필수	매체 이형제목
	매체 시리즈	해당 시 필수	매체가 시리즈물일 경우 기술
	제작일	필수	매체가 제작된 날짜
	매체 유형	필수	매체의 유형
	전자 자료 유형	해당 시 필수	매체가 전자 자료일 경우 그 유형
	수량	필수	매체의 수량
	크기	필수	매체의 크기
	쪽수	해당 시 필수	매체가 인쇄자료일 경우 쪽수를 기입
	부록	해당 시 필수	매체에 부록이 삽입되어 있을 경우 기술
	매체 제작단체	해당 시 필수	매체를 제작한 단체
	매체 제작자	해당 시 필수	매체를 제작한 자
	매체 제작지	해당 시 필수	매체를 생산한 장소
	매체 언어	필수	매체에서 사용되는 언어
내용영역	자막사항	해당 시 필수	자막 유무와 언어 기술
	실행도구	해당 시 필수	매체가 실행도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기술
	재생시간	해당 시 필수	매체의 재생시간
	재생속도	선택	매체의 재생속도
	주기사항	선택	기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중요 정보이나 다른 요소에 기술하기 어려운 정보
기록관리 영역	재생산(복제) 조건	선택	자료 복제를 위해 필요한 조건
	기술 일자	필수	해당 정보를 기술한 날짜
	아키비스트 주기	필수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자의 정보

1) 매체시리즈

매체가 시리즈 중 하나일 경우 기술한다. 시리즈명에 연도가 표기되어 있다면 이를 시리즈 이름 앞에 괄호로 병기하여 준다. 더불어 시리즈의 번호가 존재한다면 시리즈 이름 뒤에 기술하여 준다.

예시) (2002)산울림 고전 극장 시리즈1

2) 제작일

매체가 제작된 날짜를 기술한다.

예시) 2009SUS 10월 20일

3) 매체 유형

자료의 유형을 기술한다. 유형은 인쇄, 전자, 박물 자료로 구분되며, 전자 자료(전자)일 경우에는 이를 보존하고 있는 물리적인 매체를 반드시 기술한다.

예시) 인쇄자료 / 전자자료(DVD)

4) 전자 자료유형

전자 자료일 경우 그 포맷을 기술하여 준다.

예시) JPG / PDF / TEXT 등

5) 수량

해당 매체의 전체 수량을 기술한다.

예시) 2개 있음

6) 크기

해당 매체의 크기를 기술한다.

예시) 24cm * 24cm

7) 쪽수

해당 매체가 인쇄자료인 경우 기술한다. 쪽수가 자료에 기술되어 있다면 그 쪽수를 따른다. 그러나 기술되어 있지 않다면 앞뒤 날개를 제외하고 세어 준다. 세어준 단위는 p로 기술한다.

예시) 공연포스터 1p

8) 부록

해당 매체에 딸림 자료가 존재할 시 이를 기술한다. 부록 자료는 페이지, 길이, 수량 등 형태사항을 간략히 기술하여 준다.

예시) CD의 복릿 존재(20p 8cm * 6.5cm. 2개)

9) 매체 제작단체

해당 매체를 제작한 단체명을 기술한다. 만약 제작단체가 여럿일 경우 가장 주가 되는 단체를 가장 앞에 기술한다.

예시) 000 제작단체

10) 제작자

해당 매체를 제작한 제작자를 알 수 있다면 기술하여 준다. 제작자들이 여럿일 경우 역할을 ()괄호로 병기하여 준다.

예시) 000(촬영기사), 000(편집자)

11) 제작지

해당 매체를 제작한 장소를 기술한다. 최소 도시까지는 적어준다.

예시) 서울: 우림극장

12) 매체언어

매체의 겉 부분(표지 등)에 쓰인 언어를 기술한다. 만약 매체의 내용언어가 겉 부분에 쓰인 언어와 상이할 경우 내용에 쓰인 언어도 기술하여 준다.

예시) 영어(한국어)

13) 자막사항

매체에 자막이 있을시 자막이 화면 어디에 위치하는지와 언어를 기술한다.

예시) 자막 하단부에 위치. (영어, 한국어 혼용자막)

14) 실행도구

해당 매체를 실행할 수 있는 도구의 명칭을 기술하여 준다. 가능하다면 그 위치도 함께 기술한다.

예시) DVD 플레이어. 본관 2층 영사실에 위치

15) 재생시간

매체의 길이(시간)을 분 단위로 기술한다.

예시) 95분

16) 재생속도

매체의 재생속도를 기술한다.

예시) VHS 경우 SP.

17) 재생산(복제조건)조건

자료 복제를 위해 필요한 조건정보를 기술한다. 이를 위해 주로 저작권 정보가 기술되게 된다.

예시) 해당 자료의 공중송신권은 저작권자 000에게 있으므로 자관 비치의 용도로는 제한이 없으나 대여, 복제 등은 반드시 허락을 구해야 함.



4.2.5 개별 자료 메타데이터 요소

개별 자료 개체는 매체 개체의 사례들로 제목, 크기 등과 같은 사항은 매체 개체에서 취한다. 따라서 개발 자료 개체에서는 아카이브에 소장하고 있는 실제 물리적 기록물을 관리하는 메타데이터가 중점적으로 기술된다. 즉 입수일, 입수방법, 인수처, 인계자, 인수자와 같은 기록물과 관련되는 요소가 필수요소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 한편 개별 자료의 총 메타데이터 요소는 19개이다.

<표19> 개별 자료 메타데이터

영역	요소	구분	내용
식별영역	식별 코드	필수	자료를 식별하는 코드
	소장자	해당 시 필수	자료를 소장한 사람
	소장 단체	해당 시 필수	자료를 소장한 기관
기록관리 영역	입수일	필수	특정한 자료를 입수한 날짜
	관리이력	해당시 필수	해당 자료의 상태에 영향을 미친 모든 관리 행위
	소장이력	해당시 필수	자료 소장 후 행한 이력에 관한 내용
	입수방법	필수	자료의 입수방법
	인수처	필수	자료 인수처
	인계자	해당시 필수	자료 인계자
	인수자	해당시 필수	자료 인수자
	평가, 폐기, 처리일정 정보	해당시 필수	자료의 이용가치 등을 평가한 정보, 향후 폐기나 이동 등 처리 일정, 이를 행한 행위자에 관한 정보 기술
	물리적 위치	필수	자료의 물리적 위치
	전자적 위치	필수	자료의 전자적 위치
	자료이용 조건	해당시 필수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선행되는 조건
	원본의 존재와 위치	해당시 필수	자료가 원본일 경우 기술하며, 위치도 기술
	사본의 존재와 위치	해당시 필수	자료가 사본일 경우 기술하며, 위치도 기술
내용영역	주기사항	선택	기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중요 정보이나 다른 요소에 기술하기 어려운 정보
기록관리 영역	기술일자	필수	해당 정보를 기술한 날짜
	아키비스트 주기	필수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자의 정보

1) 소장자

자료를 현재 소장하고 있는 개인명을 기술한다.

예시) 소장자 000

2) 소장단체

자료를 현재 소장하고 있는 단체명을 기술한다.

예시) 소장단체 000

3) 입수일

해당 자료를 입수한 날짜를 기술하여 준다.

예시) 2008년 10월 17일 입수

4) 관리 이력

해당 자료의 상태에 영향을 미친 모든 관리 행위를 기술하여 준다. 예를 들어 자료의 이동, 보존처리, 비밀 사항 재고, 자료 접근 권한 변경, 행위의 사유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이 같은 행위가 일어나기 전의 자료의 상태도 기술하여 주며, 관리의 행위자도 반드시 기술한다.

예시) 199년 8월 2일 인쇄자료(팸플릿)입수. (담당자 000) / 열람실 비치.
2001년 7월 2일 인쇄자료 수장고로 이동(담당자 000) / 이동 전 총 300p
였으나, 이동 중 부주의로 1p가 뜯겨나가 총 299p가 되었음.

5) 소장이력

자료가 입수된 후 자료를 이용한 이용내역과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다. 예를 들어 자료의 대출, 반납 기록을 들 수 있다.

예시) 2007년 2월 14일. 이용자 000가 7일간 대출함

6) 입수방법

자료가 어떻게 입수되었는지 유형을 기술한다. 예컨대 구입하거나, 기증, 제작, 이관 등의 유형을 기술한다.

예시) 기증 / 제작 / 이관 중 택1

7) 인수처

자료를 인수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기술하여 준다.

예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수함.

7) 인계자

자료를 인계한 담당자를 기술한다. 파악되지 않는다면 위의 요소인 인수처만 기술한다.

예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000

8) 인수자

자료를 인수하여 자관으로 이관한 담당자를 기술한다.

예시) 담당자 000

9) 평가, 폐기, 처리일정 정보

자료의 이용가치 등을 평가한 정보와 향후 폐기나 이동 등 처리 일정과 이를 행한 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기술한다.

예시) 2012. 1월. 20일 평가 결과: 영구자료 책정. 향후 폐기일정은 없으며 자료의 열화가 심각하여 보존처리를 긴급히 요망.

9) 물리적 위치

자료가 인쇄 자료 등의 실물자료일 경우 보관하고 있는 위치를 기술하여 준다.

예시) 지하 2층 보존실

10) 전자적 위치

자료가 전자 자료일 경우 기술하며 전자적 위치를 링크로 연결하여 준다. 가능하다면 전자 자료를 담고 있는 보존매체의 위치를 기술하여 준다.

예시) WWW.DATE0001213(전자적 위치)/ CR-R 매체 1층 열람실 20번 서가 위치 (보존매체 위치)

11) 자료 이용조건

자료를 이용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다. 예를 들어 열람가능/불가, 대출가능/불가 등의 정보를 기술한다. 또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할 때는 그 사유를 입력하여 준다.

예시) 자료 대출 불가. 열람만 가능. 사유: 분실 시 재 구입할 수 없는 메뉴스크립트 형식의 단일 자료.

12) 원본의 존재와 위치

해당 자료가 사본일 경우 기술하며 원본의 위치를 기술하여 준다.

예시) 원본 자료이나 사본이 존재하지 않음

13) 사본의 존재와 위치

해당 자료가 원본일 경우 기술하며 사본의 위치를 기술하여 준다.

예시) 원본 위치: 5층 공연예술자료실의 12번 서가

V. 결 론

이 연구는 공연예술자료의 특성인 다중 출처에 맞도록 메타데이터 모델과 요소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먼저 공연예술과 그 파생자료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탐구하여 공연예술자료의 행위과정을 공연계획 - 작품 선정 - 작품분석 - 배우 캐스팅 및 스태프진 결정 - 작품 분석 - 디자인 조합 - 연습 - 총연습(프리뷰) - 공연 - 무대 인사 - 검토 및 수정 과정으로 구별하였다. 더불어 자료의 유형을 정리하고 각각의 행위과정에서 발생 될 수 있는 자료들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기록관리의 전통적 원칙인 출처, 원질서 원칙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ISAD(G)를 공연의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이 결과 물리적인 출처를 기준으로 하는 전통적인 관점의 출처주의는 생산에 수많은 개인과 단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공연의 생산맥락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에 기능적 출처, 다중 출처주의, 평행출처주의를 살펴본다 생산자와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표현될 방안을 고찰하였다.

이후, 목록의 본질적 기능인 집서기능에 충실하다고 평가받는 FRBR을 살펴본다 다중 출처를 지니는 공연예술자료에 적용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 결과 FRBR은 자료를 계층적, 집합적으로 조직할 수 있으며, 공연예술의 시간 변화를 민감한 계층 표현으로 표현해 줄 수 있음이 나타났다. 하지만 표현형 계층에서 각각의 개별적인 공연들을 설명해 줄 수 없는 한계 또한 지녀 좀 더 새로운 메타데이터 모델을 제안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3장에서는 국내 대표적 공연예술관리 기관인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국립국악원 국악아카이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의 전체 메타데이터 사례를 살펴보고, 이 요소들을 바탕으로 향후 제안할 모델에 사용될 메타데이터 요소를 선별하였다.

4장에서는 공연예술자료의 수많은 이해당사자와 단체들을 기술하기 위한 모델과 요소를 제안하였다. 먼저 모델은 출처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자료가 자유롭게 이합 집산될 수 있는 메타데이터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에 사

용되는 개체들은 작품, 공연, 개별 공연, 매체, 개별 자료로 이루어진다. 한편 모델에 사용되는 메타데이터 요소들은 다음의 방법을 통해 도출되었다.

첫째, 3장에서 파악한 기관들의 전체 요소들을 제안한 모델의 개체인 작품, 공연기획, 공연, 매체, 개별 자료에 각각 매핑하였다. 둘째, 매핑 결과물은 해당 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전문가 3명의 자문을 받아 현실 적용 가능성과 타당성 점검을 시행하였다. 이에 용어 교정 등 관련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다. 셋째,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총 89개의 전체 메타데이터가 도출되었다. 이 요소들은 각 개체에서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첫째, 작품은 하나의 추상적인 작품에 관한 배경정보 기술을 위한 메타데이터인 식별 코드, 제목, 부제, 이형제목, 창작연도, 창작일 등 18개 요소가 도출되었다. 둘째, 공연에는 공연일정, 장소, 참여자, 공연단체, 관련 행사 등을 17개 메타데이터 요소가 도출되었다. 이들은 작품의 추상적 내용이 공연이라는 구체적 과정으로 기획되는 프로세스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셋째, 개별 공연은 특정한 실제 개별 공연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기 위한 관련 공연정보와 공연일시, 특이사항 등 11개 메타데이터 요소가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FRBR의 표현형 계층이 전체 일정으로 진행된 공연과 하나하나의 개별 공연을 구분하여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매체는 각각의 개별 공연에서 파생된 매체의 사항을 기술하기 위한 수량, 크기, 매체종별, 제작자, 제작 장소 등 24개 메타데이터 요소가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개별 자료는 자료를 기록으로 관리하기 위한 식별 코드, 입수일, 관리 이력, 자료 위치, 이용조건 등 19개 요소가 도출되었다. 이렇게 연구의 결과로 나온 모델과 요소는 자료는 물론, 추상적인 작품과 공연을 다양한 관점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어 공연예술자료를 다루는 기관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 연구는 각기 특성을 지닌 공연예술의 장르가 세밀하게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2집단의 개체인 개인과 단체의 속성을 기술하는 메타데이터가 제시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한계들은 향후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후속연구로 나타나야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고승길. (2006). 연극자료의 수집과 활용의 올바른 방향, 『춤의기록과보존』, 한국춤기록보존연구소.

국립극장. (2006). 『공연예술자료관 현황과 전망』. 서울: 국립극장.

_____. (2006). 『공연예술자료관 건립 연구보고서』. 서울: 국립극장.

_____. (2007).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설립 기본계획』. 서울: 국립극장.

김선옥 외. (2007). 『공연예술』. 대전: 한남대학교 출판부.

김수정, 김용. (2013). 무형문화유산 기록물을 위한 FRBR 기반 메타데이터 요소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0(2): 120-141.

김윤영. (2012). 『김백봉 춤아카이브의 분류체계 연구』. 예술전문사 학위논문.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김중효, 유철우, 이희정. (2009). 『공연예술의 이해』.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김진성. (2009). 『영화 기록의 기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김태은. (2011). 『국내 공연예술 기록물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전공.

김해미. (2010). 『공연예술박물관 기술요소 제안 및 적용사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 전공.

남성호. (2006). 공연예술자료관의 과제와 전망: 와세다대학 연극박물관을 중심으로 『공연예술자료관 현황과 전망: 국립중앙극장 세미나 자료

- 집』. (pp.39-55) 서울: 국립극장.
- 노명환. (2006). 19세기 독일의 역사주의 실증사학과 기록관리 제도의 정립: 랑케, 지벨 그리고 레만과 출처주의/ 원질서 원칙. 『기록학연구』, 14: 359-388.
- 노지현. (2007). 한국의 도서관 환경에서 FRBR 모델의 의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2): 223-244.
- 류민주. (2011). 『지역 연극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록화 전략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전공.
- 미라 펠너. (2014). 『공연예술 산책』. 최재오, 이강일, 김기란, 이인수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박민구. (2009). 『민간 극단의 연극기록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 전공.
- 박성욱. (2009). 『공연예술 자료 메타데이터 구조 설계』.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미디어방송학 전공.
- 박주석. (2013). 예술기록 생산기관과 제도의 이해. 『예술기록관리 입문과정』, (pp.23-35). 서울: 국립예술자료원.
- _____. (2011). 국립예술자료원의 자료관리 전문화 방안. 『국립예술자료원 개원 1주년 기념 세미나: 예술자료관리의 중요성과 국립예술자료원의 역할』. (pp.8-35). 서울: 국립예술자료원.
- 박지영. (2008). 문화유산 자원 통합 활용을 위한 CRM 기반 FRBR 응용 온톨로지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9(2): 45-62.
- 방효순. (2002) 출처주의의 새로운 경향과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2): 69-92.
- 백지원, 설문원. (2013). 예술기록관리프로세스와 조직. 『예술기록관리 입문과정』, (pp.60-90). 서울: 국립예술자료원.
- 서영순. (1989). 『연극도서관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

- 여자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 전공.
- 서해숙. (2013). 진도아리랑 전자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과 설계. 『인문콘텐츠』, 29 : 219-240.
- 서혜란. (2002). 기록물 기술의 표준화. 『기록학연구』, 1: 7-22.
- 설문원. (2011). 예술기록의 분류와 정리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 217-247.
- 안종혁. (2007). Flexible Media의 상호작용과 실재감: 공연콘텐츠안의 영상매체 중심으로. 『전자영상학술지』. 4(2): 65-82.
- 양세라. (2011). 민간극단의 공연기록 관리 현황과 공연기록 관리 방향 모색 : 목화와 오태석의 공연기록관리 현황을 근거로. 『한국드라마학회』. 15: 57-83.
- 유현정. (2013). 『연극의 영상기록화 전략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대학원 문화자원기록전공. 석사학위논문.
- 윤용준. (2012).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의 현황과 발전방안. 『예술경영연구』, 21 : 91-122.
- 윤지현. (2012). 춤 기록화 현황과 발전에 관한 연구. 『대한무용학회』, 70(4): 66-82.
- 이경래. (2014). 호주 원주민 공동체 아카이브와 평행출처주의의 현재적 의미. 『기록학연구』, 40: 30-60.
- 이대영. (2011). 공연예술의 특성과 기록의 중요성. 『예술기록관리 전문가 양성과정』. (pp.23-33) 서울: 국립예술자료원.
- 이미화, 정연경. (2008). 저작 클러스터링 분석을 통한 FRBR의 목록 적용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5(3): 65-82.
- 이범환. (2009). 공연예술 아카이브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 이성숙. (2007). IFLA의 서지레코드 기능요건(FRBR) 모형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2): 320-342.

- 이성숙, 김태수. (2005). FRBR 모형의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1): 195-220.
- 이소란. (2012). 『부산지역 전통공연예술 기록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 대안으로의 전통공연예술기록관 설립』. 석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 기록관리학과.
- 이윤용, 강은비, 이재나, 김용. (2014). FRBR기반의 전통건축물 메타데이터 스키마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5(3): 29-57.
- 이정하. (2013). 원로배우 김길호에 대한 기록 작업: 남도 목포 연극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2): 147-156.
- 이호신. (2007). 『예술자료의 체계적 관리 활용 방안 연구』. 서울: 예술경영지원센터.
- _____. (2011). 예술자료 정보화의 추진 방향과 과제. 『국립예술자료원 개원 1주년 기념 세미나: 예술자료관리의 중요성과 국립예술자료원의 역할』. (pp.39-54) 서울: 국립예술자료원.
- _____. (2013). 공연예술기록의 저작권 문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 249-268.
- _____. (2013). 공연예술기록의 초상권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 333-355.
- _____. (2014). 공연예술아카이브의 존재론적 특성에 관한 연구. 『무용역사기록학회』, 33: 12-33.
- 정미라. (2009).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의 정보자원 공유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기록물관리학 전공.
- 정진규. (2007). 방송영상자료의 FRBR기반 서지구조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1): 185-214.
- 정은진. (2009). 연극의 기록화 방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0:

115-15.

_____. (2011). 연극기록물의 수집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29: 35-78.

정혜원. (2007). 연극아카이브 특성 및 현황 연구. 『한국연극학』, 33: 83-136.

정희숙. (2008). 『국내 공연예술자료 보존의 개선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문화기획전공.

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10). 『예술자료관리 전문화 방안 연구』. 서울: 국립예술자료원.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 용어사전』. 서울: 역사비평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문화정책백서』. (pp.39-54) 서울: 문화관광부.

한윤희. (1997). 『무용의 무대 공연예술 경영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황동열. (2007). 예술아카이브의 현황과 도입방안 연구. 『한국무용기록학회』, 12: 177-215.

Adrian Cunningham. (2002). 『호주의 공공기록 관리 전략』. 이승억 역. 서울: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Arlene G. Taylor. (2010). 『FRBR의 이해』. 오동근, 김정현, 여지숙, 배영환 역. 서울: 태일사.

IFLA. (1998). 『서지레코드의 기능상의 요건. Functional Requirements of Bibliographic Records Final Reports』. 김태수 역.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 국외문헌

- Philip Auslander. (1999). *Liveess: Performance in a Mediatized Cultur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Busch, Joseph A.(1997). SGML for Cultural Heritage Information: *Midyear Meeting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1: 9-25.
- ICA.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2000). ISAD(G): *General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Description*. 2nd ed. ottawa, In.
- Sarah Jones, Daisy Abbott And Seamus Ross. (2009). *Redefiing Performing Arts Archive*. Archival Science. 8(3).
- Marini, Francescam. (2008). Performing Arts Archives: *Dynamic Entities Complementing and supporting scholarship and creativity*. Theatre History Studies. 28: 27-35.
- Phelan, peggy. (1993). *Unmarked: The Politics of Performanc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Robert A. Rogers. (1979). The Humanities: *A Selective Guide to Information Source*. Lyttleton: Libraries Unlimited, In.
- VTLS, (2004). Virtua IIs-Integrated Libraty System: *FRBR Cataloging User's Guide*. (Version 43.1)
- www.viks.sk/digitus/kis3g/WORD/43frbr.doc [cited 2015. 05. 07].

3. 참고사이트

두산백과. (2015). 『두산백과사전』. 검색일자: 2015.03.1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9552&cid=40942&categoryId=32856>

문예팁. (2010). 『드라마사전』. 검색일자: 2015. 03. 1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89860&cid=42612&categoryId>

메디컬코리아 편집부. (2011). 『무용이론사전』. 서울: 메디컬코리아. 검색일자: 2015.03.1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75386&cid=50342&categoryId=50342>

국립극장. 검색일자: 2015. 04. 11.

www.ntok.go.kr

국립국악원. 검색일자: 2015. 04. 12.

www.gugak.go.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 검색일자: 2015. 04. 15.

www.archive.arko.or.kr

IFLA. www.ifla.org 검색일자: 2015.06.02

부록

메타데이터 요소 적용 사례

작품 메타데이터 요소 적용 사례(기반 작품) - 계속

요소	구분	기술내용
식별코드	필수	식별 코드 부기
작품제목	필수	별난 가족
작품부제	해당 시 필수	
작품이형제목	해당 시 필수	
창작연도	해당 시 필수	1999
초연일	해당 시 필수	2002년 12월 24일
작가	필수	최철기
각색자	해당 시 필수	
번역자	해당 시 필수	
등장인물수	해당 시 필수	8명
등장인물명	해당 시 필수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삼촌, 딸, 사위, 도둑, 노인
작품언어	필수	한국어
작품줄거리	선택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어머니, 삼촌, 딸, 안경에 비밀을 가진 손님, 그리고 이들의 집에 들어선 도둑까지. 일상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범상치 않은 별난 가족의 별난 이야기
기반작품	해당 시 필수	
관련작품	해당 시 필수	별난 가족 -> 점프
주기사항	선택	
기술일자	필수	2014.10.4
아키비스트 주기	필수	기술자 홍길동

작품 메타데이터 요소 적용 사례2 - 계속

요소	구분	기술내용
식별코드	필수	식별 코드 부기
작품제목	필수	점프
작품부제	해당 시 필수	마살아츠 퍼포먼스 점프
작품 이형제목	해당 시 필수	Comic Marital Arts Performance JUMP!
창작연도	해당 시 필수	2003
초연일	해당 시 필수	2003년 7월 6일
작가	필수	최철기
각색자	해당 시 필수	
번역자	해당 시 필수	
등장인물 수	해당 시 필수	8명
등장인물 명	해당 시 필수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삼촌, 딸, 사위, 도둑, 노인
작품언어	필수	한국어
작품 줄거리	선택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어머니, 삼촌, 딸, 안경에 비밀을 가진 손 님, 그리고 이들의 집에 들어선 도둑까지. 일상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범상치 않은 별난 가족의 별난 이야 기
기반작품	해당 시 필수	별난 가족
관련작품	해당 시 필수	
주기사항	선택	2003년 04월 별난가족에서 점프로 공연제목이 변경됨
기술일자	필수	2015.05.11
아키비스 트 주기	필수	기술자 홍길동

공연 메타데이터 요소 적용 사례_1

요소	구분	기술내용
식별코드	필수	식별 코드 부기
공연제목	필수	점프!
공연부제	해당 시 필수	마셜아츠 퍼포먼스
공연이형제목	해당 시 필수	Comic Marital Arts Performance JUMP!
공연일정	필수	2004년 03월 27일~4월 11일
공연장소	필수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연출자	필수	이준상
기획단체	필수	(주)예감
홍보단체	해당 시 필수	
판매단체	해당 시 필수	클립서비스
관련행사	해당 시 필수	
공연언어	필수	한국어
상연시간	필수	80분
공연이용연령	선택	전체 이용가
주기사항	선택	
기술일자	필수	2015.05.11.
아키비스트 주기	필수	기술자 홍길동

공연 메타데이터 요소 적용 사례_2

요소	구분	기술내용
식별코드	필수	식별 코드 부기
공연제목	필수	JUMP! 강남 우림 청담극장
공연부제	해당 시 필수	마셜아츠 퍼포먼스 점프: 마셜아츠 퍼포먼스
공연이형제목	해당 시 필수	Comic Marital Arts Performance JUMP!
공연일정	필수	2003년 7월 6일~8월 24일
공연장소	필수	강남 우림 청담극장
연출자	필수	이준상
기획단체	필수	(주) 예감
홍보단체	해당 시 필수	
판매단체	해당 시 필수	티켓링크
관련행사	해당 시 필수	
공연언어	필수	한국어
상연시간	필수	80분
공연이용연령	선택	전체 이용가
주기사항	선택	청담극장은 구 강남난타전용관임
기술일자	필수	2015.05.11.
아키비스트 주기	필수	기술자 홍길동

개별 공연 메타데이터 요소 적용 사례

요소	구분	기술내용
식별 코드	필수	식별 코드 부기
연기자	필수	배우: 정태민, 임성배(할아버지), 진영섭, 임철호(아버지), 김성희, 김지은, 김현주(어머니), 전주우, 김상수, 임한창(삼촌), 황희정, 김영지(딸), 윤정열, 홍상진(사위), 백천기, 홍현표, 김철무, 김민호(도둑) 박성진, 윤효상(노인)
스태프진	해당 시 필수	최철기(프로듀서), 이동준(음악), 백원길(코미디 연출), 박계환(무술안무), 정옥수(아크로바틱 지도), 장문호(리듬지도), 박미란(무대디자인), 안선민 (음향 Asst)
연출자	필수	이준상
공연일시	필수	2004년 03월 27일 8시
관련 공연 정보	필수	이 개별 공연의 기획인 ‘공연’ 개체의 식별기호 기술
공연 특이사항	해당 시 필수	실 출연 정태민, 임철호, 김상수, 홍상진, 백천기, 윤효상 10000번째 관람자 이벤트 있음
공연평	선택	이 공연은,,,
주기사항	선택	
기술일자	필수	2014. 08. 10일
아키비스트주기	필수	기술자 홍길동

매체 메타데이터 요소 적용 사례¹²⁾

요소	구분	기술내용
식별 코드	필수	식별 기호 부기
매체 제목	필수	문예진흥원 공연실황
매체 부제	해당 시 필수	
매체 이형제목	해당 시 필수	JUMP 2min Clip
매체 시리즈	해당 시 필수	2004년도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상반기 공연 시리즈
제작일	필수	2004년 04월 10일
매체 유형	필수	전자자료 (DVD)
전자 자료 유형	해당 시 필수	AVI
수량	필수	3개
크기	필수	12cm
쪽수	해당 시 필수	
부록	해당 시 필수	85x54 mm -86x64 mm 사이즈의 콤팩트 디스크 포함
매체 제작단체	해당 시 필수	OO소프트
매체 제작자	해당 시 필수	
매체 제작지	해당 시 필수	서울
매체 언어	필수	한국어
자막사항	해당 시 필수	화면 하단부에 영어자막 있음
실행도구	해당 시 필수	DVD 플레이어
재생시간	해당 시 필수	76분
재생속도	선택	
주기사항	선택	
재생산(복 제) 조건	해당 시 필수	없음
기술 일자	필수	2015.05.11
아키비스 트 주기	필수	기술자 홍길동

12) JUMP!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2004년 3월 27일 8시 공연의 파생 매체

개별 자료 메타데이터 요소 적용 사례

요소	구분	기술내용
식별 코드	필수	식별 기호 부기
소장자	해당 시 필수	
소장 단체	해당 시 필수	한성대학교
입수일	필수	2015년 04월 02일
관리이력	해당시 필수	DVD매체에 담겨있던 파일을 하드디스크로 마이그레이션
소장이력	해당시 필수	2015년 05월 23일 극단 00가 12일간 대여
입수방법	필수	구입
인수처	필수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인계자	해당시 필수	김철수
인수자	해당시 필수	홍길동
평가, 폐기, 처리일정 정보	해당시 필수	2015년 04월 05일 자료 평가 시행, 폐기일정 없음
물리적 위치	필수	지하 2층 보존실 5번 캐비닛 4열 2줄
전자적 위치	필수	
자료이용 조건	해당시 필수	대출가능
원본의 존재와 위치	해당시 필수	
사본의 존재와 위치	해당시 필수	지하 2층 보존실 5번 캐비닛 4열 3줄에 사본 2개 존재
주기사항	선택	
기술일자	필수	2015.05.11
아키비스트 주기	필수	기술자 홍길동

ABSTRACT

A study on description for performing Arts Resources based on Multiple Provenance

Lee, Ching–Min

Major in Archives & Records Management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c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e 21st century is the era of culture. It can be said that culture and arts are outcomes of creative and intelligent activities of human beings. That is, we are living in the era where culture and arts are creating new economic values. With the advent of media technology and the remarkable growth of content industry, culture and arts are now deemed as a new resource with unlimited potential. Systematic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the new resource thereof are one of the eminent tasks that we are currently encountering.

Performing arts that are deemed as a new resource has the following attributes. First, a single performing arts is performed repeatedly. Second, many types of derived records are produced in a single performing arts. Third, performing arts is an outcome of an activity conducted by various people playing their respective role in process of producing a performance. That is to say, performing arts data, unlike conventional public records, has so many provenances. On

that account, it would not be reasonable to make a record solely based on a single provenance. In other words, it would not be appropriate to make a record only from a specific organization's perspective or from a particular individual's perspective.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seek for a measure to organize and describe performing arts data in recognition thereof.

To this end, Chapter2 Theoretical Background distinguished the behavioral process of performing arts data by exploring performing arts and the derived data thereof in depth. Moreover, Chapter2 also organized the types of data and identified the data that could be generated from each respective behavioral process. Furthermore, this study examined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original order' that was the traditional principle of record management. Also, this study examined ISAD(G) that was based thereon from a performing arts perspective.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the principle of provenance with the traditional perspective that was based on physical provenance could hardly reflect the production context of performance in which a large number of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were organically integrated. Hereupon, this study examined functional provenance, multiple provenance and simultaneous multiple provenance and also reviewed the measures that could represent both producer and stakeholders.

After then, this study examined FRBR that was widely regarded to have complete listing function. In this regard, this study reviewed whether it could be applied to performing arts data that had simultaneous multiple provenance. As a result thereof, FRBR was able to organize data hierarchically and collectively. Moreover, it was able to express temporal change of performing arts in a sensitive layer. However, it also has the limitation that it cannot describe each individual performance in expression-type layer. Hence, it proposed

the need for a new metadata model.

Chapter3 examined the overall metadata cases of the following prominent performing arts administrative institutes: the National Theater Performing Arts Museum,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Archive of National Traditional Music Center and the Arts Data Center of Korean Culture and Arts Council. Chapter 3 selected the metadata elements to be used in the proposed model based on the aforementioned elements.

Chapter4 proposed the model and elements for describing a large number of stakeholders and organizations in relation to the data of performing arts. First, Chapter4 proposed the relationship-type metadata model that allowed data to be freely collected and integrated depending on various perspectives of provenance. Those objects utilizing the aforementioned relationship-type model consist of work, performance, individual performance and individual data. In contrast, the metadata elements to be used in the model were deducted through the following method. First, the overall elements of the institutes identified in Chapter3 were mapped to the objects of the proposed model such as work, performance planning, performance, media and individual data. Second, this study examined applicability and feasibility of the mapping outcomes in consultation with the three experts having 5 or more years of work experience in the relevant field. Hereupon, some parts of the contents were modified and also some terms were corrected as well. Third, a total of 89 overall metadata were finally deducted after the aforementioned process.

These elements are to be used in each entity as follows. First, 18 elements, including identification code, title, sub-title, variant title, year of creation and resource of creation, were deducted in relation to work. These elements were the metadata for description of background information as to an abstract work.

Second, 17 metadata, including performance schedule, place, participants, performance organization and related events, were deducted in relation to performance planning. They describe the information as to planning process in which abstract content of a work is developed as a specific process.

Third, 11 metadata, including performance information, performance resource and specific details, were deducted in relation to performance. They were for description of related information as to each individual performance. This would possibly complement the limitation that expression-type layer of FRBR could not classify performances conducted as a part of an overall performance schedule from those separately conducted stand-alone performances for the purpose of description.

Fourth, 24 metadata, including quantity, size, medium type, producer and production place, were deducted in relation to medium. They were for description of medium related information derived from each individual performance.

Lastly, 19 elements, including identification code, resource of acquisition, management history, data location and condition of use, were deducted in relation to individual data. They were for management of data as a record.